

부지소종(不知所終)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박윤자**

〈차 례〉

1. 서론
2. 정서적 몰입과 비극미의 조성
 - 2.1. 종교적 성취와 애정 실패 사이의 비극 : 조신, 김현감호
 - 2.2. 애정 실패의 비극미 강화 : 운영진
3. 정서적 거리두기와 인식적 여운의 창출
 - 3.1. 정서적 거리두기와 미감의 변화 : 아도기라, 포의교집
 - 3.2. 개방형 결말과 의미의 확장 :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
4. 인식적 각성과 아이러니의 조성 : 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독자가 텍스트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식적 소통 과정에 주목하여 부지소종형 결말이 작품 내에 어떠한 미감과 의미를 조성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전기소설 작품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폈는데, 부지소종형 결말이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고취시키고 비극미를 조성하는 경우, 독자로 하여금 여러 의미를 따져보게 만들어 정서적 거리두기를 야기하고 인식적 여운을 창출하는 경우, 그리고 정서적 몰입보다는 인식적 각성을 일으키며 아이러니를 조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에는, 인물이 겪는 갈등의 결과 및 결말 형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갈등 패배’형 ‘완결형 결말’에서 ‘부지소종’은 대체로 두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038883)

**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가지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하나는 서사 전반의 ‘슬픈 정서’를 이어받아 ‘비극적인 미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서적 몰입에 거리를 두고 ‘개방형 결말’을 지향하며 ‘인식적 여운’을 형성하는 것이다. <조신>, <김현감호>, <운영전>의 경우에는 ‘갈등 패배’에서 오는 슬픈 정서의 연장선상에 ‘부지소종’이 자리하며 비극적인 미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아도기라>, <포의교집>,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의 경우에는 결말부의 ‘부지소종’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갈등 패배에서 오는 슬픔에 몰입되지 않고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완결형 결말’을 ‘개방형 결말’로 해석할 실마리를 주거나 의미를 확장하여 생각할 여지를 주게 되면서 정서적 공감보다는 인식적 여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갈등 극복형’ ‘완결형 결말’에서 ‘부지소종’은 새로운 가능성을 극도로 확장시키며 결말의 의미를 반전시키고 있었다. <최생우진기>와 <하생기우전>의 경우에는 갈등 극복형 결말에 ‘부지소종’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미 완결된 결말에 부정적인 의미나 의심스러운 여지를 제공하여 서사 자체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허구성을 돌출시켰다.

부지소종형 결말은 ‘정보의 제한성’과 ‘갈등의 결과가 유예되는 특성’, ‘결말의 비결정성’으로 인해 한문 서사 내에서 특유의 미감과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지소종’으로 인하여 서사 전반의 정서가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며, 의미가 전환되기도 하였다. ‘알 수 없음’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갈등의 결과나 결말, 인물의 실체, 사건의 진위 여부나 신뢰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부지소종, 한문서사, 결말유형, 미감, 비극미, 정서적소통, 인식적소통, 독자수용, 수용미학, 조신, 김현감호, 운영전, 아도기라, 포의교집,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 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 삼국유사, 금오신화, 기재기이, 전기소설

1. 서론

이 연구는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한문 서사에서 드러나는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지소종(不知所終)’은

‘서술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혹은 ‘인물의 죽음이나 종말(終末)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뜻을 지닌 표현을 말한다. 서사 내에서 ‘중(終)’은 중층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서사 속 갈등이나 행적의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인물의 끝,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부지소종’이라는 표현은 한문 서사의 말미(末尾)에서 결말을 구성하는 기능어로 쓰이며, 서사 속 주인공의 행방이나 갈등의 결과와 관련되어 ‘알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더하며 고유한 미감을 형성한다. 다양한 한문서사에서 부지소종이 활용된 결말을 볼 수 있고 그 특유한 미감이 종종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에 대해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다.

‘부지소종’은 대개 『금오신화(金鰲新話)』 속 작품들의 비극적 미감 및 작가 김시습의 생애와 연결 지어 분석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지소종’은 ‘유불선(儒佛仙) 사상의 반영’, ‘전기소설의 특성’, ‘비극적 결말’의 일종으로 해석되었다. 대표적으로 <만복사저포기(萬福寺櫟蒲記)> 속 ‘부지소종’은,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¹⁾, 도선적 지향이나 도가로 귀환을 의미하는 표현²⁾, 전기소설 특유의 고독과 초월의 형식이자 비극적 결말의 표현³⁾, 비극적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의 형상화⁴⁾, 주인공의 ‘머뭇거림’과 함께 모호함과 기이함을 생성시키는 전기소설의 미학적 기제⁵⁾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 1) 김일렬, 「금오신화 고찰」,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355쪽.
- 2) 최삼룡, 『한국초기소설의 道仙思想』, 형설출판사, 1982; 김정미, 「〈용궁부연록〉에 나타난 주인공의 인식 변화와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28, 태민국학연구원, 2021, 363~393쪽.
- 3) 박희병,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소설미학(小說美學)』, 『한국한문학회연구』 18, 한국한문학회, 1995, 239~268쪽;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 7, 창작과비평사, 1995, 120~140쪽.
- 4)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07~334쪽.
- 5) 신재홍, 「초기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그러나 ‘부지소종’은 김시습의 『금오신화』 속 작품들뿐만 아니라, 일연의 『삼국유사』, 신광환의 『기재기이』, <운영전>이나 <포의교집> 같은 애정전기소설, <검승전>, <검객소모전>, <설생전>, <허생전> 등의 전계소설, 영웅소설인 <최고운전>에서도 볼 수 있다. 『금오신화』에서 보인 사례만으로 부지소종의 미감이나 의미가 모두 이해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만복사저포기>의 결말이 비극이 아니라 주인공 내면 의식의 변화나 각성⁶⁾ 혹은 선업(仙業)과 치유의 행위⁷⁾ 등으로 해석되면서 『금오신화』의 비극성 논의에 전환이 이루어졌다. 『금오신화』의 미감이 다양하게 해석되는 만큼 ‘부지소종’의 미감과 의미 역시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부지소종’은 ‘정보의 제한성’과 ‘갈등의 결과가 유예되는 특성’, ‘결말의 비결정성’으로 인해 한문 서사 내에서 특유의 미감과 의미를 형성한다. 한문 서사에서 ‘부지소종’이 종종 사용된 이유는 이 결말이 당대 한문 서사 창작 관습 내에서 특정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소설의 비극적 결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부지소종’을 이해하기 전에, 다양한 한문 서사를 살펴서 ‘부지소종형 결말’이 지니는 미감과 의미를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부지소종’이 ‘결말부’에서 서사의 종결과 관련된 기능을 하며 독특한 미감을 발생시키는 한문 서사를 삼는다. 다만, ‘부지소종’이라는 표현이 작자의 의도나 맥락에 따라 다른 한자어로 변형될 수 있

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9~151쪽.

6)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33~58쪽; 변숙자·현승환,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허혼(虛婚) 풍속 연구」, 『청람어문교육』 69, 청람어문교육학회, 2019, 357~393쪽.

7) 설중환, 「만복사저포기: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239~262쪽; 김수연, 「<만복사저포기>의 ‘입산체약’과 비극성 재론」,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95~217쪽.

기 때문에, ‘부지(不知)’의 맥락에서 ‘알지 못함’의 의미를 지니거나, ‘소종(所終)’의 맥락에서 ‘결말·결과의 불분명함’이 드러나는 표현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결말에 위치한 ‘부지소종(不知所終)’은 ‘부지(不知), 알지 못함’이라는 맥락에서 ‘부지소지(不知所之)’, ‘막지소종(莫知所終)’, ‘부지하락(不知下落)’, ‘부지기소향(不知其所向)’, ‘부지소거(不知所去)’ 등으로 변용된다. 또한 ‘소종(所終), 결말/결과’가 불분명하다는 맥락에서 ‘사라졌다, 가버렸다, 다시 보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수불부현(遂不復現)’, ‘불부환언(不復還焉)’, ‘이역기사(已易其肆)’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편의상 이러한 표현들을 아울러 ‘부지소종형 표현’ 또는 ‘부지소종’이라 칭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한문 서사의 ‘결말부’에서 특정한 미감과 의미를 조성할 때 ‘부지소종형 결말’이라고 칭하겠다. 부지소종형 결말이 있는 텍스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⁸⁾

구분	시기	부지소종형 결말
일연 『삼국유사』	13세기	아도기라 : 不知所歸, 遂不復現, 後不知所終. 조신전 : 後莫知所終. 김현감호 : 大哭數日 竟不知所之.
김시습 『금오신화』	15세기	만복사저포기 : 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 용궁부연록 : 入名山, 不知所終.
신광한 『기재기이』	16세기	최생우진기 : 其後生入山 採藥不知所終 하생기우전 : 求前之卜師, 則已易其肆云.

8) 저본은 자료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삼는다.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2003[포의교집]; 김시습 지음, 심경호 옮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검녀, 검객모소전, 최고운전]; 신광한 지음, 박현순 역주, 『기재기이』, 범우, 2008[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장생전, 검승전, 설생전, 허생전]; 이상구 편역,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15[운영전];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1~2』, 서울출판사, 1997[아도기라, 조신전, 김현감호]; 최삼용·이월령·이상구 공역, 『한국고전문학전집24. 유충렬전, 최고운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최고운전] 이 연구의 자료에 있는 모든 밑줄은 연구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애정 전기소설	17세기 19세기	운영전 : 寢食俱廢. 後遍遊名山, 不知所終云爾. 포의교집 : 又言楊婆背夫 而不知下落.
최고운전	17세기	영남대도서관소장 최고운전 : 入伽倻山, 不復還焉. 국립중앙도서관본 최고운전 : 入伽倻山, 冠履倒置林下, 不知所去 云耳.
전계소설	17세기 18세기	17세기 오도일 설생전 : 已爲墟矣, 生不知其之何也. 17세기 허균 장생전 : 如飛而行 須臾失所在. 18세기 신광수 김승전 : 明日, 不知所之. 18세기 안석경 검녀 : 漠然不知其所向云. 18세기 유한준 검객모소전 : 已去, 莫知所終. 18세기 박지원 허생전 : 明日復往, 已空室而去矣.

부지소종형 결말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 부지소종형 결말은 각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배경이나 서술 관습, 작품집의 성격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3세기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적 성취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의 일환으로,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에서는 전기소설의 특성인 기이함(奇)이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작품인 신광환의 『기재기이』 이후로, 17~19세기의 작품들에 사용된 부지소종형 결말은 종교적 성취나 기이성, 비극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감과 의미를 조성하고 있다. 관습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작품의 내용이나 결과에 의해 미감과 의미가 달라지기에, 시기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부지소종형 결말의 양상과 미감, 의미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작품의 미감과 의미는 ‘독자’가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문학텍스트는 ‘작자-텍스트-독자’의 역동적인 소통 과정 속에서 의미화 되고 구체화 된다. 볼프강 이저와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는 ‘수용미학이론’을 제시하여 문학텍스트의 ‘의미(意味)’는 ‘독자의 능동적 해석 과정’에서 창출된다고 보았다.⁹⁾ 더불어, ‘미감(美感)’은 ‘독자’가 예술텍스트

를 통해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으로, 정서적, 감각적, 인식적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¹⁰⁾ 체험의 주체인 ‘독자’의 소통 과정이나 의미화 과정이 작품 감상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연구는 텍스트에서 환기되는 ‘내포독자’의 ‘독서 경험’ 및 ‘독서 과정’을 주요하게 살필 것이다.¹¹⁾

더 나아가, 이 연구는 ‘부지소종’이 독자의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 ‘정서’와 ‘인식’의 두 영역에서 작동하여 결말의 미감이나 의미를 미묘하게 변화시키는 점에 주목한다. 독자는 정보 전달이나 주제 인식 등의 ‘인식적 과정’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특정 요소에 욕구나 감정, 기운 등이 반응하는 ‘정서적 과정’을 통해 문학텍스트 감상을 완성한다. 특히 ‘정서’는 독자가 문학텍스트에 대한 미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서’는 신경과학계에

9) 로버트 C. 홀립, 최상규 옮김,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83쪽 참고.

10) 미적 경험은 ‘체험 주체’와 ‘체험 대상’ 사이의 관계에 따라, 체험의 질에 따라, 체험 주체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감성적이나 이성적, 혹은 주관적이나 객관적인 것 사이의 역동적이고 섬세한 균형을 통해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 동인, 1995, 119~151쪽 참고.

11) ‘내포독자(Implied Reader)’는 텍스트를 통해 환기되는 존재로, ‘문학 작품이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필요한 바탕을 구현하고 있는 독자’를 의미한다. 내포독자는 작가가 가정한 독자이자, 실제 독자를 대리하는 가상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는 완성된 구성체가 아니며 ‘빈자리, 공백’이 존재한다. ‘빈자리’는 작가나 텍스트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실제 독자는 텍스트의 빈자리를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 배경지식, 전통적인 내용이나 구조,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규약을 통해 해석한다. 실제 독자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에 따라 텍스트의 공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이를 통해 완성되는 독서 행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가는 텍스트 내에 내포독자를 상정하여 텍스트를 의도에 맞게 구현하고, 실제 독자가 그 의도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실제 독자는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 배경지식이나 사회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텍스트의 빈자리를 활성화하며 내포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로버트 C. 홀립, 최상규 옮김(1999), 앞의 책, 116~130쪽; 김승환,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논총』 7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445~470쪽.)

서 자아의 형성 및 공감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로 이해되고¹²⁾, 표현주의 예술론에서는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가장 중요한 소통 기제로 언급된다.¹³⁾ 등장인물에 공감하거나 투사함으로써 독자가 텍스트와 소통하는 과정, 텍스트에 정서적으로 공명하는 과정은 인식적 소통 과정보다 직접적이며 핵심적이기에 미적 판단이나 의미 도출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독자와 텍스트의 소통에 있어 ‘정서’와 ‘인식’ 양자 간에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는 결말 형태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결말의 양상을 ‘인물과 세계의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결과가 분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완결형 결말’과 ‘개방형 결말’로 구분하고자 한다. ‘완결형 결말’은 인물이 세계와의 갈등을 극복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갈등 극복형 결말(행복한 결말)’과 ‘갈등 패배형 결말(슬픈 결말)’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다.

12) 정서(emotion)는 어떤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정신적·신체적 부수물, 혹은 어떤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정서는 자아나 의식 형성의 원천이자, 인간의 이야기 향유의 핵심 영역이기도 하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2019)는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은 ‘정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다마지오는 이성적 사고보다 신체와 결부된 ‘느낌(feeling)’과 이것이 확장된 ‘정서(emotion)’를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며, 이들이 자아의 원천이라 하였다. ‘정서’는 진화적 과정 동안 생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로부터 자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생겨나 타인과의 공감이나 협력으로 이어지고, 사회제도나 종교, 도덕 등을 빚어냈다고 보았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엄지원·고현석 옮김, 『느낌의 진화』, 아르테, 2019, 370~372쪽.

13) ‘정서’는 ‘표현주의 예술론’에서 소통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예술은 일종의 ‘정서의 표현’이자 ‘정서의 환기’로, 예술가는 예술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불분명한 정서를 명료하게 만들고, 감상자는 그들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자기만의 정서’를 발견하게 된다. 문학작품 안의 특정 표현을 통해 독자는 자기 내부의 정서적인 무언가를 발견하는 총체적이며 상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의 정서적 반응이 문학작품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R.G. 콜링우드, 김혜련 옮김,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146~184쪽.

갈등이 유보·포기·취소되면서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를 ‘개방형 결말(열린 결말)’이라 칭하도록 하겠다.¹⁴⁾ ‘부지소종’은 텍스트의 말미에 위치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알지 못함’이나 ‘정보 없음’의 의미를 더하여 텍스트의 결말에 영향을 끼치고 최종적인 미감이나 의미를 완성한다. ‘부지소종’이 텍스트의 결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독자의 정서적·인식적 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2. 정서적 몰입과 비극미의 조성

2.1. 종교적 성취와 애정 실패 사이의 비극 : 조신, 김현감호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일화 중에 <조신(調信)>과 <김현감호(金現感虎)>에서 부지소종형 표현을 볼 수 있다. <조신>에는 ‘막지소종(莫知所終)’, <김현감호>에는 ‘부지소지(不知所之)’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결말 부에 쓰이는 짧은 표현이지만 서사 전반의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조신(調信)>은 불법을 퍼트린 승려 조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方分手進途而形開。殘燈翳吐，夜色將闌。及旦鬢髮盡白，惘惘然殊無人世意。已厭勞生，如飫百年辛苦，貪染之心，洒然氷釋。於是慚對聖容，懺滌無已。歸撥蟹峴所埋兒，乃石彌勒也。灌洗奉安于隣寺。還京師，免莊任，傾私財創淨土寺，懃修白業。後莫知所終。議曰 讀此傳 掩卷而追繹之 何必信師之夢爲然 今皆知其人世之爲樂 欣欣然役役然 特未覺爾 乃作詞誡之曰 快適

14) 김형석·류수열, 「비극성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 결말 구조 연구 -〈이생규장전〉, 〈운영전〉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48쪽; 고영진, 「환상소설의 결말에 관한 연구-구병모, 이기호, 최제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7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8쪽 참고.

須臾意已閑 暗從愁裏老蒼顏 不須更待黃粱熟 方悟勞生一夢間 治身臧否先
誠意 鰥夢蛾眉賊夢藏 何以秋來清夜夢 時時合眼到清涼. 『삼국유사』 권3, 제
4탑상(塔像)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 정취(觀音 正趣) 조신(調信)¹⁵⁾

승려 조신이 장원 태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어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관계 맺기를 빌었다. 어느 날 그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 낭자와 부부가 되었으나 자녀 다섯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며 괴로워하다가 헤어지려던 차에 꿈에서 깨어난다. 이 이야기의 말미에 조신이 깨어나 잘못을 뉘우치고 정토사를 세워 불법을 닦았으며 종적을 감추었기에 ‘어떻게 마쳤는지 알 수 없다(莫知所終)’고 서술되어 있다.

<조신>은 승려 조신이 불교적 업적을 성취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슬픈 정서와 비극적인 미감이 조성된다. 조신에게 애욕을 추구하는 인간적 욕망이 있었고, 이것이 불법을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조신은 애정 욕망과 불교적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만, 한 번의 꿈을 계기로 불도(佛道) 따르기로 한다. 여기에서 조신이 가졌던 인간적 욕망은 좌절하지만, 불법을 추구하는 종교적 업적은 성취되고 있다. 논찬부에서 종교적 깨달음을 언급하는 것은 이 서

15) “막 헤어져 길을 떠나려 할 때 그만 꿈을 깨었다. 이때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이 바야흐로 새려 했다. 아침이 되니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지고 망연(然)하여, 전히 세상에 뜻이 없어져 사는 것도 벌써 싫어지고, 한평생 괴로움을 겪은 것 같았다. 탐염(貪染)의 마음도 깨끗이 얼음 녹듯 없어져버렸다. 이에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져서 잘못을 뉘우쳐 마지않았다. 돌아와 해현(蟹峴)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부처였다. 이것을 물로 씻어 부근의 절에 모셨다.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소임을 그만두고 사재를 들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우고 착한 일을 근심히 닦았다. 그 후에 세상을 어디서 마쳤는지 알 수 없다. 평해서 말한다. “이 전기를 읽고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니 하필 조신사(調信師)의 꿈만이 그렇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 날뛰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사를 지어 경계한다.”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2』, 서울출판사, 1997, 121~129쪽.

사에서는 조신의 종교적 성취가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술자의 의도와 다르게, 조신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종교적인 신념이나, 둘 중에 무엇에 집중하며 읽느냐에 따라 독자가 경험하는 정서나 미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부지소종형 결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신>의 주된 정서는 인물의 행적과 이에 결부된 감정에서 비롯된다. 서사의 여러 요소 중에서, 독자는 주로 ‘인물’에 몰입하여 읽게 된다. 대개 독자는 인물의 욕망이 성취되는 과정에 따라 인물이 경험하는 감정에 공감하며 읽는 경향이 있다. 조신의 이야기는, 장원의 관리인으로 한 여성을 사랑하는 조신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며, 그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조신의 꿈’이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사 내의 주된 감정은 ‘조신의 애정에 대한 갈망→여인과의 결합에 대한 기쁨→가난으로 인한 고통→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부인의 헤어지자는 요청과 눈물→헤어짐에 대한 기쁨→꿈에서 깨어나 느끼는 허망함’으로 이어진다. 꿈에서 깨어난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에 뜻이 없어져 사는 것도 싫어지고 한평생 괴로움을 겪은 것 같았다’고 되어 있다. 이후에 ‘조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재로 정토사를 세웠으며 선업을 쌓으며 살았다’고 이어진다. 그의 망연자실함은 인간세상을 탐험한 결과로 승려로서 얻는 감정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독자에게 그의 망연자실함과 허망함은 앞에 제시된 인간적 애정 욕망의 좌절로 인한 슬픔의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인간적 애욕 성취 및 이에 대한 감정적 경험이 더 비중 있게 서술되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조신이 속세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진실을 깨닫고 불법에 정진했다는 논찬으로 마무리하며 종교적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신의 인간적 좌절과 이에 따른 슬픈 정서를 전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독자는 불교적 공적보다는 인간적인 욕망과 감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경험하게 된다. <조신>을 불교서사라기보다 전기소설로 이해하고 비극적 인식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독서경험과 관련된다.¹⁶⁾

이러한 조신의 이야기 말미에 ‘막지소종(莫知所終)’이 붙어 있다. 조신이 꿈을 꾸고 크게 깨달아 승려로서 착실하게 살았는데, 말미에 ‘막지소종’이 붙어 ‘이후 세상을 어떻게 마쳤는지 알 수 없다’고 끝난다. 여기에서 ‘막지소종’은 ‘결말의 비결정성’보다는 ‘인물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음’의 ‘정보 부족’의 의미가 크다. 이미 승려로서 절을 세워 종교적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결말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막지소종’은 단순히 ‘인물의 종말을 모른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상, 승려로서의 조신의 이야기에 ‘정보 없음’의 의미가 더하여져 ‘증거 부족’ 또는 ‘신뢰성 부족’의 의미로도 읽힌다.

<조신>은 서사 구조상, 조신의 인간적 욕망이 담긴 꿈은 액자 내부에 들어 있고, 승려 조신으로서의 이야기는 액자 외부에 위치한다. 액자 내부에 있는 인간적인 꿈과 욕망의 좌절이 주된 슬픔의 정서를 조성하는 가운데, 액자 외부에 있는 승려 조신의 업적과 그 말미에 ‘막지소종’이 붙어 있는 것이다. ‘알 수 없음’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막지소종’은 승려로서의 조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증언하며, 조신이라는 승려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그가 세웠다는 정토사는 남아 있지만 조신이라는 승려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승려로서의 조신뿐만 아니라, 그가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불교적 행적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그가 새로운 절을 창건할 정도로 승려로서 업적을 쌓았다면 그만큼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막지소종’이 없었다면 승려 조신의 행적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막지소종’이 덧붙여 승려 조신의 실체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의심받게 되었다. ‘막지소종’으로 조신이라는 승려와 그의 업적이 의심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사는 승려보

16) <조신>과 <김현감호>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전기소설’이나 ‘비극적 인식’이 드러나는 서사로 이해된다.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01~326쪽 참고.

다 인간으로서 조신이 가졌던 욕망과 가난하고 고통 받던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슬픈 정서를 주되게 조성하고 있는 <조신>에서 ‘부지소종형 결말’은 슬픈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한다. ‘부지소종형 표현’이 뜻하는 ‘알 수 없음’의 ‘정보 부족’의 의미가 더하여지면서, 승려로서 조신의 행적은 의심받게 되고, 인간으로서 조신이 가졌던 감정 및 그의 애정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슬픔의 정서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부지소종형 결말’이 전체 서사 중에서도 조신의 꿈이 좌절된 것에 몰입하게 만들면서, 서사 자체 또한 ‘갈등 패배형 결말’로 인식되는 효과를 준다. 이로 인해 서사의 결말부까지 슬픈 정서와 비극적인 미감이 지속되고 있다.

<김현감호(金現感虎)>의 말미에도 부지소종형 표현인 ‘부지소지(不知所之)’가 쓰이고 있다.

遂與訪其家 不復有人矣 妻思慕之甚 盡日涕泣 忽壁角見一虎皮 妻大笑曰 不知此物尚在耶 遂取披之 卽變爲虎 哮吼擎攫 突門而出 澄驚避之 二子尋其路 望山林大哭數日 竟不知所之 噫 澄現二公之接異物也 變爲人妾則同矣 而贈背人詩 然後哮吼擎攫而走 與現之虎異矣 現之虎不得已而傷人 然善誘良方以救人 獸有爲仁如彼者 今有人而不如獸者 何哉 詳觀事之終始 感人於旋佛寺中 天唱徵惡 以自代之 傳神方以救人 置精廬講佛戒 非徒獸之性仁者也 蓋大聖應物之多方 感現公之能致精於旋 欲報冥益耳 宜其當時能受禧佑乎 讚曰 山家不耐三兄惡 蘭吐那堪一諾芳 義重數條輕萬死 許身林下落花忙. 『삼국유사』 권5, 제7 감통(感通) 김현감호(金現感虎)17)

17) “드디어 함께 그 여자의 집에 갔더니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그 아내는 사모함이 너무 심하여 종일 울고 있더니 문득 벽 모퉁이에 한 장의 호피(虎皮)가 있는 것을 보고는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물건이 아직도 여기 있구나.” 마침내 집어서 그것을 덮어 쓰니 곧 범으로 변하는데 으렁거리며 할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신도장은 놀라 피했다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녀가 떠난 그 길을 찾아서 산림을 바라보고 며칠

<김현감호>에는 김현과 신도징, 두 인물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첫째 이야기는 ‘김현(金現)’의 이야기로, 김현이 탐돌이를 하면서 정을 통했던 처녀가 인간이 아닌 호랑이였고, 처녀가 악한 일을 한 오빠들을 대신하여 죽자, 이후 김현이 호원사(虎願寺)를 짓고 호랑이의 은혜에 보답했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신도징(申屠澄)’의 이야기가 서술된다. 신도징 역시 길을 가다 한 초가집에서 처녀를 만나 혼인하고 1남 1녀를 낳는다. 이후에 같이 처녀의 옛집에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아내는 종일토록 울기만 하다가 모퉁이에 있는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호랑이가 되어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다. 신도징은 놀라서 피했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호랑이가 간 길을 찾으며 며칠을 울었으나 “끝내 간 곳을 알지 못했다(景不知所之)”고 마치고 있다. 이후 논찬부에서 서술자는 김현의 범은 처음에 탐돌이에서 만났기에 부처의 감응이 있었지만 신도징은 부처의 감응이 없었다며, 불심(佛心)이 김현과 신도징의 결말이 달라진 가장 큰 원인이라 말하고 있다.

서술자가 두 이야기를 결합시켜 서술한 의도는 ‘김현의 범’에 있다. ‘신도징의 범’ 이야기는 김현의 이야기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부연처럼 보인다. ‘그 결과의 차이가 불교에 있다’는 논찬부가 덧붙여 김현의 불심을 칭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자는 불법의 전수 여부에 따라 종교적 성취가 완성

을 크게 올렸으나 마침내 간 곳을 알지 못했다. 슬프다! 신도징과 김현 두 분이 짐승을 접촉했을 때 그것이 변해서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신도징의 범이 사람을 배반하는 시를 보내고 으르렁거리고 핏줄이면서 달아난 것은 김현의 범과는 달랐다. ... 이 사적의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면 절을 둘 때 사람을 감동시켰고 하늘에서 외쳐 악을 징계하려 하자 스스로 그것을 대신하고 신희한 약방문을 전해서 사람을 구제하고 사원을 지어 불계(佛戒)를 강(講)하게 했던 것이다. 이는 다만 짐승의 본성이 어진 것만으로서가 아니다. 대개 대성(大聖)이 사물에 감응함이 다방면이었으므로 능히 김현 공이 탐을 돌기에 정성을 다한 데 감응하여 그윽한 이익을 갚아줬을 뿐이니 당시에 복을 받은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1997), 앞의 책, 360~372쪽.

되는 결말(김현의 경우)과 미완으로 끝나는 패배형 결말(신도징의 경우)을 나란히 제시하여, 종교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김현의 범은 잠시나마 인간이었던 범이 인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죽었고 이로 인해 불교를 펴트리게 되었기에, 서사 내에 비장하고 경이로운 미감을 형성한다.

그러나 김현과 신도징 이야기 모두 사랑하는 아내와의 헤어짐이라는 슬픔의 정서 및 이로 인한 비극미를 형성하고 있다. 신도징의 이야기는 승려의 업적을 다루거나 불교 확산을 위해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다. 김현의 범과 대조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쓰이고 있는 일화일 뿐이다. 신도징의 이야기는 김현의 범을 칭송하기 위해 덧붙은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가 뒤에 전개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서사의 미감이 종교적인 비장미보다는 인간적인 좌절과 고통, 이로 인한 비극미로 수렴된다.

‘부지소지(不知所之)’는 김현의 범 이야기에 붙은 것이 아니라 신도징의 범 이야기 뒤에 붙어 있다. 김현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욕망에 있어서는 갈등 패배의 슬픈 정서가 조성되긴 하지만, 불교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갈등 극복의 결말로도 이해되며 송고미와 비장미가 조성된다. 그러나 신도징의 이야기는 갈등 극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불교적 성취도 없고 인간적 성취도 없다. 다만 범이었던 아내와의 헤어짐만이 드러나며 갈등 패배형 결말로 인식시킨다. 이러한 아내와의 헤어짐에 부지소지(不知所之)가 덧붙여 슬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부지소지(不知所之)’는 신도징과 그의 아내인 범에게 쓰였다는 점에서 ‘아내의 이후를 신도징이 알지 못함’이자 ‘사랑하는 아내와의 헤어짐’을 뜻하는 ‘갈등 패배형 결말’을 강화하는 용어에 가깝다. 특히 ‘부지소지’ 앞에 ‘아내가 떠나가고 신도징이 며칠을 크게 울었다’는 내용이 붙어있기에 ‘아내의 간 곳을 알지 못했다’의 주체는 신도징이 된다. 서술자의 정보 없음이 아니라 신도징이라는 인물이 아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서사 내에서 ‘부지소지’는 ‘증거 부족’으로 전체

적인 서술을 의심하게 하거나 신이함을 강조하기 보다는, 신도징이라는 주체의 슬픈 정서를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비극적인 미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 애정 실패의 비극미 강화 : 운영전

<운영전>의 결말에도 ‘부지소종(不知所終)’이 쓰이고 있다. <운영전>에서 부지소종형 결말은 애정 실패에서 오는 슬픔의 정서와 비극적인 미감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전>은 유명이라는 선비가 수성궁 터를 노닐다가 잠에 드는데,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깨어난다는 이야기다.

柳泳乘醉暫睡。少焉，山鳥一聲，覺而視之，雲烟滿地，曙色蒼茫，四顧無人，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泳悵然無聊，袖冊而歸，藏之篋笥，時或開覽，茫然自失，寢食俱廢。後遍遊名山，不知所終云爾。 <운영전(雲英傳)>¹⁸⁾

수성궁에서 ‘김진사와 운영’은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사랑이야기를 적어주며 세인에게 전하여 기억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유영은 그 기록이 담긴 책자를 가지고 돌아와 침식을 전폐하고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알지 못한다(不知所終)’고 마치고 있다. 속세에서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고 애절하게 죽은 연인은 ‘김진사와 운영’인

18) “유영도 술에 취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산새 우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구름과 연기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치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은 없고, 단지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 있을 뿐이었다. 유영은 쓸쓸하고 무료하여 책자를 소매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와 대나무 상자 속에 숨겨두었다. 하루는 그 책을 펼쳐 보고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모두 그만두었다. 그 뒤 유영은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으나, 그가 생을 마친 곳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상구 편역,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15, 167쪽.

데, 그 둘은 천상에서 다시 만나 못 다한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기로 한 ‘유영’이 책을 보고나서 망연자실하여 침식(寢食)을 그만두고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소식이 끊기는 것이다.

<운영전>은 구조적 특성 및 갈등을 겪는 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작품이다. <운영전>은 액자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처음과 끝인 액자 외부에 유영이 수성궁 터에서 천상계로 간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액자 내부에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이다. 액자 구조 안에서 애정을 성취하지 못한 주체는 김진사와 운영이므로 둘의 결말은 분명 세계와의 갈등에서 패배한 결말이자 비극미를 조성하는 것이 분명하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세계와의 갈등이 서사의 핵심에 해당되며, 전반적인 정서도 두 인물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좌절, 이로 인한 슬픔으로 조성되고 있다. 김진사가 운영과의 사랑 이야기를 유영에게 해주면서 ‘슬픈 울음’을 울고 비통함’을 느낀다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액자 밖의 유영의 층위에는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유영에게는 갈등에서의 성취나 좌절을 읽어낼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 단지가난한 선비로서 수성궁 터에 놀러와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정화가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은 김진사가 준 책자를 보며 망연자실하여 삶에 대한 애착을 접는데, 이 때 ‘부지소종’이 사용되고 있다. 유영이 슬퍼하며 죽었다면 이는 분명한 ‘갈등 패배형 결말’이지만, 유영이 무엇과 갈등하는지 그 양상이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개방형 결말’로 볼 여지가 남는다.²⁰⁾ 유영이 특별한 갈등 없이 속세와의 인연을

19) “김진사는 쓰기를 마치고 붓은 던졌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고 슬픈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위의 책, 165쪽.

20) 김형석·류수열(2018)은 <운영전>의 액자구조 때문에 비극적이라고만은 하기 어렵다며 개방형 결말로 읽는다. 김형석·류수열(2018), 앞의 글, 141~164쪽 참고.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기에, 유영의 인생으로 따지자면 인과관계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운영전>에서의 ‘부지소중’은 중심인물이 아닌 ‘유영(柳泳)’이라는 인물에게 적용되어 있기에, 액자 구조의 형태적 특성과 맞물려 독특한 의미와 미감을 조성한다. <운영전>은 액자 내부에서 액자 외부로 서사의 주체가 변경되면서, 액자 내부의 애정 실패의 좌절감을 유영이 존재하는 또다른 세계인 액자 외부로까지 확장시킨다. 때문에 <운영전>의 액자 밖은 비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에도 액자 내부와 연결되어 전반적으로 비극적인 미감을 조성한다.

유영(柳泳)은 과거에 낙방하고 자유로이 수성궁 터를 거니는 선비이자,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들어주는 유연하고 열린 존재이다. 그는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聽者)’이자, 저승과 이승을 경험하고 연결하는 존재이며, 액자 내의 이야기를 액자 밖으로 전달해주는 ‘매개자(媒介者)’이기도 하다. 유영은 김진사 및 운영과의 대화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쓸쓸하고 무료하게 느끼다가 책을 다시 펼쳐보는 망연자실하여 자신의 삶마저도 접고 속세를 떠나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서술은 액자 내부의 주된 정서인 슬픔을 액자 바깥 층위도 전달하며, 김진사와 운영의 슬픔을 다른 인물에게 전염시키는 효과를 준다. 유영이 존재하는 또다른 현실은 김진사와 운영이 사는 세계와 거리가 다른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액자 내부의 이야기가 액자 밖에도 연결되어, 그들처럼 갈등에 좌절하고 패배하여 숨어버리는 듯한 결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영의 행적 말미에 붙은 ‘부지소중’은,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 결연 실패에서 오는 슬픈 정서 및 비극미의 연장선상에 기능하고 있다.

서사 말미의 ‘유영의 행적’은 액자 안의 비극미를 액자 바깥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액자 속 미감을 ‘독자’에게까지 전염시키는 기능을 한다. 유영이라는 인물은 <운영전>을 접하는 ‘청자나 독자’를 표상한다. <운

영전>의 주된 이야기의 서술자인 김진사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고 이를 세속에 전달해줄 청자이자 매개자를 필요로 했다.²¹⁾ 그러한 인물로서 유영은 매우 적합하다. 유영은 청파에 사는 선비로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남루한 옷을 입고 용모가 초라하며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인 존재이다.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마저 없어 홀로 술을 들고 수성궁을 찾아온 유영은 부끄러움과 무료함을 주된 정서로 지내는 인물로, 낮설고 기이한 저승의 사람인 김진사와 하룻밤 친구가 되어 소회를 나누기를 꺼리지 않을 인물이다. 이러한 유영이라는 인물은 김진사나 <운영전>의 작자가 설정한 내포독자에 가깝다. 김진사와 운영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절절하게 공감해줄 수 있을 독자를 유영으로 설정한 것이다. 내포독자라고도 할 수 있는 유영의 망연자실과 ‘부지소종’은 작가가 독자에게 바라는 감상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독자에게 비극적인 미감을 전달하기 위해, 유영이 김진사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다가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모두 그만두고 ‘부지소종’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유영의 ‘부지소종’은 ‘애정 실패의 비극’에다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의 의미 또한 첨가한다. 유영이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망연자실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애정 실패에 공감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애정 실패의 비극’ 외에 수성궁과 안평대군으로 표상되는 ‘권위의 몰락’이 인간사의 무상감과 비애감, 상실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운영전>에서 액자 밖의 가장 첫 서술은 수성궁에 대한 묘사로 시작되며²²⁾, 액자의 가장 끝 역시

21) <운영전>에서 ‘유영’이 김진사의 죄를 판단할 ‘독자’로서 호출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박경진, 「<운영전>에 나타난 죄인-작가의 사후 면죄를 위한 글쓰기와 호출된 독자들」,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0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5, 581~618쪽.

22)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 집으로, 장안성 서쪽인 인왕산 아래에 있다. 이곳은 산천이 수려하여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걸터 앉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수성궁 남쪽에는 사적단이 있고 동쪽에는 경복궁이 있다. ... 이곳은 푸른빛을 짙게 띤 구름과 안개가 아침저녁으로 고운 태도를 자랑하니, 참으로 절승지라고 할 만 했다. ... 유생은 부끄

수성궁과 안평대군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된다.²³⁾ 수성궁은 본래 산천이 수려하고 수많은 길이 통하는 절승지였지만, 유영이 방문했을 때에는 전란을 겪어 무너진 담과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잡초 등만 남아 있었다. 김진사는 자신은 운영과 천상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고 특은 악행을 행한 대가를 받았으니 분통함도 없다고 말한다. 다만, 안평대군의 몰락으로 수성궁이 비어 있고 자연은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사는 변하여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고 있다. 김진사는 유영에게 옛일을 회상하여 적어주면서, 자신이 진정 슬퍼하는 이유는 수성궁의 현실이라 설명한다. 수성궁이라는 몰락한 공간이 주는 상실감과 비애감, 인생무상의 허망함이 김진사의 애정 실패의 비극과 결부되어 유영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쓸쓸하고 무료하게,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유영의 ‘부지소중’에는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 실패에서 오는 슬픔과 좌절’에 ‘인생무상의 허탈함’의 정서가 가중되어 있다. ‘부지소중’은 이러한 ‘인생무상’의 의미와 잘 결합되는 용어이다. 유영이 망연자실하여 선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정이나 집착 또한 사라졌으며 현실에서의 삶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럽고 무료해서 이내 후원으로 들어갔다.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만 무성하였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 이상구 편역(2015), 앞의 책, 102~103쪽.

- 23)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으며, 원수인 노비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듯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입니까?” ... “대군이 패배한 이후에 고궁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색의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불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위의 책, 165쪽.

을 증거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유영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인생무상’이라는 ‘실체가 없는 삶 속성’을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기도 한다. 또한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준 독자이면서 새로운 독자에게 전달해줄 화자였던 유영이 사라짐으로 인해, 이를 접하는 또 다른 독자는 이야기가 더 이상 전승되지 못하는 허탈함도 느끼게 된다. 유영의 종말에 대한 의문과 함께 독자의 내면에 허탈함과 슬픔이 증폭되는 것이다. <운영전>에서의 ‘부지소종’은 ‘애정 실패’의 좌절과 슬픔에 ‘인생무상’의 허탈함이나 허무함이 가중시키고 있으며, <운영전>의 액자 구조적 특성과 결합되어 독자에게 슬픔의 정서와 비극적인 미감을 강하게 경험시키는 효과가 있다.

3. 정서적 거리두기와 인식적 여운의 창출

3.1. 정서적 거리두기와 미감의 변화 : 아도기라, 포의교집

『삼국유사』의 <아도기라(阿道基羅)>에는 ‘부지소귀(不知所歸)’와 ‘부지소종(不知所終)’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도기라>에는 앞서 나온 <조신>이나 <김현감호>와는 다른 정서와 미감이 조성되고 있다. 인간적 욕망보다 종교적 성취를 중심으로 승려의 업적이 그려지고, 이로 인한 비장미와 숭고미가 더 크게 부각되며, 이 때문에 독자가 인물의 감정에 몰입하기보다 인물과 정서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도기라>에는 신라에서 불교가 흥하게 된 연유가 설명된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의 묵호자(墨胡子)의 기록과 <아도본비(我道本碑)>에 실린 아도(我道, 阿道, 阿頭)에 관한 기록을 비교하고, 말미에 북위의 중이었던 담시(曇始)의 전(傳)을 함께 인용하고 있다.

① 묵호자(墨胡子)

(전략) 時王女病革 使召墨胡子 焚香表誓 王女之病尋愈 王喜 厚加賚 俄而不知所歸

② 아도(阿道)

(중략) 未幾 未離王卽世 國人將害之 師還毛祿家 自作塚 閉戶自絕 遂不復現 因此大教亦廢

③ 답시(曇始)

(중략) 燾大生慙懼 遂感癰(疫)疾 崔寇二人 相次發惡疾 燾以過由於彼 於是誅滅二家門族 宣下國中 大弘佛法. 始(답시)後不知所終. 議曰: 曇始以大元末到海東 義熙初還關中 則留此十餘年 何東史無文? 始旣恢詭不測之人 而與阿道 墨胡 難陀 年事相同 三人中疑一必其變譯也. 『삼국유사』 권3, 제3흥법(興法), 아도기라(阿道基羅)²⁴⁾

<아도기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편은 고구려에서 온 묵호자(墨胡子)의 이야기이다. 눌지왕 때 묵호자가 신라로 들어와 향으

24) ① “이때 왕녀가 병이 위급해서 묵호자를 불러다가 향을 피우고 소원을 말하니, 왕녀의 병이 즉시 나았다. 왕이 기뻐하여 예물을 후히 주었는데, 잠시 후에 그의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② “얼마 후에 미추왕이 세상을 떠나니 나라사람들이 법사를 해치려 했다. 법사는 모록의 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마침내 다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불교도 또한 폐지되었다.” ③ “그러나 여러 번 베어도 상하지 않으므로 탁발도는 직접 그를 베었으나 또한 상하지 않았다. 북쪽 동산에 기르고 있던 범에게 밥으로 던져주었으나 범도 또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 탁발도는 매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역절에 걸렸으며, 최호와 구경지 두 사람도 차례로 목을 병에 걸렸다. 탁발도는 이 죄가 그들 때문이라 하여 이에 두 집의 종족을 죽여 없애고, 나라 안에 선언하여 불교를 크게 퍼뜨렸다. 답시는 그 뒤에 그의 죽은 곳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논평하여 말한다. 답시는 태원 말년에 해동에 왔다가 의희 초년에 관중으로 돌아갔다 하니, 그렇다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지가 10여 년이나 되는데 어찌 동국 역사에는 그 기록이 없는가? 답시가 이미 괴이하여 알 수 없는 사람이며 아도, 묵호자, 난타와 연대 및 사적이 서로 같으니 아마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필경 그의 변명이 아닌가 한다.”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1』, 서울출판사, 1997, 387~401쪽.

로 왕의 딸을 치료해주었는데, 왕이 기뻐하며 예물을 주고 싶어 했으나 ‘그의 간 곳을 알 수 없었다(不知所歸)’고 전하고 있다. 이 묵호자의 모습이 신라의 아도화상과 비슷하다며 아도가 고구려의 묵호자일 것이라 추정하며, 그가 모친의 예언에 의해 미추왕 때 신라에 와서 신라 불교의 시조가 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둘째 편에서는 아도(阿道)화상의 행적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미추왕 때 아도 법사가 신라에서 불법을 퍼뜨리려고 애썼지만 이를 꺼리거나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기에 아도는 집으로 도망가서 숨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미추왕 때에 공주가 병이 들자 아도 법사가 절을 세워 복을 빌어야 한다고 하여 흥륜사가 지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추왕이 죽자 나랏사람들이 법사를 해치려 했기에, 아도 법사는 스스로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문을 닫고 세상을 떠나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遂不復現)’고 한다.

셋째 편에서는 앞의 두 자료인 <신라본기>와 <본비>의 내용이 어긋난다며, 담시(曇始)의 이야기를 덧붙여 신라 불교의 확산이 아도 덕분임을 논증하고 있다. 담시는 관중(關中, 長安) 사람으로 출가한 후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요동에서 불교를 전파하여 고구려 불교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북방의 흉노가 관중을 함락시켜 많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런데 흉노의 칼날이 담시를 해치지 못하는 기이한 경험을 하기에, 그들은 승려들을 놓아주고 하나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탁발도가 관중을 공격했을 때, 최호와 구검지가 불교를 미워했기에 불교를 폐지하라고 탁발도를 설득하였다. 이후 담시가 탁발도를 감화시키고자 그를 찾아갔을 때, 탁발도가 담시를 베어 죽이게 했지만 담시는 전혀 상하지 않았고, 범에게 밥으로 던져주었지만 범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탁발도가 역질에 걸리자 담시를 더욱 두려워하다가 이 모든 일을 최호와 구검지 때문으로 돌려 그들을 죽이고 불교를 크게 퍼트렸는데, ‘담시는 그 뒤 종말을

알 수 없었다(始後不知所終)’고 전한다.

<아도기라>는 논찬부가 서사의 사이사이에 붙어 있어 한 편의 압축적인 서사로서 보기에 어렵고 서사적 구성도 느슨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묵호자, 아도, 담시 세 승려의 삽화를 중첩시켜 불교적 선구자의 업적을 전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각 인물의 결말을 알 수 없다거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인 ‘부지소귀(不知所歸)’, ‘수불부현(遂不復現)’, ‘부지소종(不知所終)’으로 종결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신라의 불교가 흥하게 된 것이 아도 법사 때문이라는 논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세 이야기가 증거로써 이용된다는 점에서, 위의 세 가지 ‘부지소종형 표현’은 서술을 마치는 관습적인 종결어로 쓰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의 행적과 관련된 ‘결말’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서사 전반적으로 특정한 의미나 미감이 조성되고 있다.

<아도기라>에서 ‘부지소종형 결말’의 의미와 미감은 인물의 행적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형성된다. 세 이야기는 모두 ‘부지소종’ 앞에 언급되는 인물의 행적에 따라 결말도 다르게 이해된다. 첫째 이야기에서 묵호자는 병을 고쳤기에 큰 상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둘째 이야기에서 아도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였기에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이야기에서 담시는 베어도 베이지 않고 범도 꺼려하는 신이한 행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불교가 크게 흥하게 되지만 담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불교를 퍼트리려고 하는 인물과 불교의 힘이나 가치를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세계와의 갈등이 있고, 그러한 갈등에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결말이 그려지는 것이다. 특히 패배하는 내용과 결말이 있기 때문에 아도의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슬픈 정서와 비극적 미감이 경험된다.

그런데 결말에 ‘부지소종’이 덧붙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 먼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혹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정보의 한계를 주기에 이야기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병을 고쳤던 인물과 그의 행적을 증명할 수 없는 결말을 만들어 버린다. 이는 이를 입증해 줄 인물이 부재하게 만들면서 이야기의 현실성이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불교 확산이라는 공적에 필적할 만한 인물의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해당 인물이 사라져버렸기에 그에 대한 기록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알 수 없음’의 정보 부족은 이 행적에 대한 설득력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기이한 행적을 보인 인물이 ‘사라져 버렸음’이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인물의 신이함’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신이한 행적 이후에 평범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신이한 행적의 영향력이나 가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비범한 행적만 남기고 평범한 인물이나 평범한 삶은 제거되어야 그 행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실성과 신이함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이기에, 두 가지 가치를 공존하게 만들기 위해 ‘부지소종’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승려 개인의 행적으로 불교가 확산되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병을 고치거나 범이 두려워하는 등의 불교적인 힘을 증명하고서도 자신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승려의 겸허한 자세로 읽거나, 불교를 퍼트리는 공적을 승려 개인이 오롯이 담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부지소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러 해석이 부지소종형 표현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인물의 갈등 패배와 그로 인한 슬픔, 비극으로의 몰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낸다. 독자는 정서적으로 몰입하다가도 ‘부지소종’이 이야기하는 결말의 의미를 판단하는 ‘인식적·논리적 사고 과정’을 거치느라, 서사와 ‘정서적인 거리두기’가 이루어진다.

세 이야기에서 ‘부지소종’이 이야기하는 미감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인물이 갈등을 극복하는 결말이 되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갈등에 패배하는 결말이 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도가 무덤에 들어가 자절(自絶)했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수불부현(遂不復現)’이라

는 표현은 ‘인물의 죽음’을 의미하며 갈등 패배에서 오는 비극미를 조성한다.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목호자와 담시는 분명 갈등을 극복하고 불교를 확산하는 공이 있다. 행복한 결말로 여겨지는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결말부의 ‘부지소귀(不知所歸)’과 ‘부지소종(不知所終)’은 갈등 극복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의 정서를 오롯이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지소귀(不知所歸)’와 ‘부지소종(不知所終)’은 갈등 승리에서 오는 환희나 기쁨을 더하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기쁨을 급작스레 상쇄시켜 버린다. 갈등 승리에서 오는 감정을 즐기는 주체가 사라졌기에, 인물에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독서의 과정 또한 급작스레 종결된다. 갈등이나 대결에서 승리하여 불법을 크게 퍼뜨렸으면 그만한 업적을 인정받고 국사가 되어 추앙받을 만도 한데, 목호자나 담시는 그 후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신라본기>나 <아도본비>에도 적히지 않았다. ‘부지소종’ 같은 표현이 없었다면 독자는 이 서사에서 갈등 극복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독서 경험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적을 알 수 없다’는 ‘부지소종’으로 인해 독자는 목호자나 아도의 승리에서 오는 희열이나 환희를 경험하기 어렵게 된다. 독자가 갈등 극복에서 오는 승리감에 도취하기 전에 ‘알 수 없음’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서사에서 경험 가능한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의 결말의 미감에도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서술된 인물의 행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불법으로 병을 고치는 것과 베어도 베이지 않고 범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행적은 ‘신이함’을 자아낸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행적은 목호자에게 생존의 위협까지 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행적의 신이함의 정도가 작거나 잘 느껴지지 않는다. ‘부지소귀(不知所歸)’가 덧붙여 있어도 신이함이 크게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담시는 베어도 베이지 않았고 범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탁발도가 역질에 걸리게끔 만든다. 담시와 역질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

지만 탁발도가 답시 때문에 자신이 역질에 걸렸다고 두려워했다는 서술로 인해, 독자 역시 둘 사이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답시의 행적은 생존과 관계된 것이며 병을 고치는 행적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렇기에 세 번째 이야기에서 ‘부지소종(不知所終)’은 답시의 행적에 ‘신이함’을 강하게 더하는 기능을 한다. 앞의 행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부지소종형 표현이 주는 ‘신이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도기라>는 세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는 구성적인 특성에 ‘부지소종’이 덧붙음으로써 그 의미나 미감이 다양화되고 있다. <아도기라>에서 각기 다른 세 인물, 목호자, 아도, 답시의 행적은 ‘신라에서의 불교 확산’이라는 주제 하나로 모아진다. 비록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갈등에서 패배하여 슬픈 미감이 조성되고 있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 승려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교적 힘을 증명하려 한 사례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아도기라>에는 전반적으로 선구자의 목숨을 건 노력이나 종교적 성취에서 오는 ‘비장미’나 ‘숭고미’가 조성된다. 그러나 여기에 ‘부지소종’의 ‘알 수 없음’이 덧붙음으로써, 인물 행적에 ‘신이함’을 더하는 동시에, 서사 종결에 따라 독자가 경험 가능한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서로의 몰입을 절제’시키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인 답시의 일화에 더해진 ‘부지소종’은 전체적인 서사의 최종 결말로써 전반적인 서사적 의미와 미감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답시의 일화와 ‘부지소종’은 불교적 성취에서 오는 ‘숭고함’이나 ‘신이함’을 조성하는 동시에, ‘정보의 제한’으로 여러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행복한 결말이 야기하는 정서적 몰입을 저지하며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서적 거리두기로 인해, 갈등 패배나 승리에서 오는 정서 및 이와 관련된 미감이 부각되기보다는, 신이함이나 숭고함 등의 인식적 범주와 관련된 미감이나 여운이 조성되고 있다.

‘부지소중’으로 인한 ‘정서적 거리두기’는 19세기 작품인 <포의교집(布衣交集)>에서도 드러난다. <포의교집>은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삼아, 인물들의 심리 및 결연 실패의 상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결말부에 ‘미지 장래지여하(未知將來之如何)’와 ‘부지하락(不知下落)’이 쓰이고 있다.

<포의교집>은 하층여성이자 유부녀인 초옥이 양반인 이생과 포의의 사귀이라고 할 만한 사랑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다. 초옥이 포의지교를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생은 초옥과 정을 통한 후에 초옥과 다른 선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초옥을 멀리한다. 결국 초옥은 이생과의 사랑이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떠난다.

而時洋賊之報甚急 京師諸家皆避亂于外鄉 楊婆之家亦在其中 從此永斷可謂飛去西洋風矣 李生亦下鄉 未知將來之如何耳 其後 聞於仲約及永必 則楊婆與仲約 雖未通情 後相面甚款矣 又言楊婆背本夫 而不知下落 是誠然乎? <포의교집(布衣交集)>²⁵⁾

서사 말미에서 초옥은 여령(女伶)에 차출되었다가 제외되고 안국동에 잠시 머물렀는데, ‘서양 오랑캐의 난리 통에 영영 소식이 끊겨서 이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未知將來之如何)’고 서술되며, 또한 중약과 영필에게서 들은 바를 인용하여 ‘양파가 본 남편을 버리고 어디 떨어져 사는지 모르겠다(不知下落)’고 적고 있다. 부지소중형 표현인 ‘알지 못함’과

25) “이때는 서양 오랑캐의 소문이 매우 급박하던 때라 서울의 여러 집들이 난리를 피해 시골로 내려갔다. 양파의 집도 그 중 하나여서 그 이후로는 영영 소식이 끊겼으니 ‘서양바람에 날려갔다’고 할 만하다. 이생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 후 중약과 영필에게서 들으니 양파와 중약은 비록 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 서로 만나면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또 말하기를 “양파가 본 남편을 버리고 어디 떨어져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이후 논찬 이어짐) 김경미·조혜란 역,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2003, 187~190쪽.

‘결말의 불분명성’을 의미하는 말을 이용하여 두 인물의 종말 및 작품의 결말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생과 초옥의 ‘부지소종’은 둘 간의 사랑이 실패한 이후에 그들의 자취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생과 초옥은 이미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영영 소식이 끊김’은 ‘헤어짐’을 의미한다. 둘이 모두 ‘부지소종’하는 결말은 둘 간의 애정 실패를 의미하며 슬픈 정서를 조성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초옥이 남편과도 떨어져 살며 중약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새로운 기류가 생기는 듯한 말을 덧붙인다. ‘이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후에 덧붙는 “그 후 중약과 영필에게서 들으니 양파와 중약은 비록 정을 통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 서로 만나면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라는 말은 ‘부지소종’을 ‘알지 못함’의 의미로 한정해 버린다. 서술자만 알지 못할 뿐, 초옥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 덧붙는 “또 말하기를, ‘양파가 본 남편을 버리고 어디 떨어져 사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라는 표현은, ‘부지소종’의 ‘자취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임을 드러낸다. ‘부지소종’이 본래 ‘정보 없음’의 의미가 있지만, <포의교집>에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다른 언급을 덧붙임으로써 ‘서술자 자신은 모른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부지소종형 표현은 초옥이라는 인물의 삶과 관련되어 여러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포의교집>에서 ‘부지소종’은, 초옥과 이생의 사랑은 실패했기에 ‘갈등 패배형’의 닫힌 결말로 이해될 만한 것을, ‘서술자만 알지 못함’에 한정하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여 ‘열린 결말’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부지소종’으로 인한 ‘개방형 결말’은, 독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결말의 의미를 인식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독자가 인물 간의 오해 및 애정의 실패에서 발생하는 씁쓸하고 허탈한 정서로 몰입하는 것을 저해하며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효과

를 내고 있다.

<포의교집>에서 ‘부지소종’의 기능 및 이로 인한 의미의 확장은, ‘포의교집’이라는 주제 및 초옥과 이생의 서로에 대한 상반된 태도와도 결부되어 있다. <포의교집>은 액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액자 내부에는 초옥과 이생의 애정 결연담을 다루고 있고, 액자 밖의 서두와 말미에는 ‘포의교집’과 관련된 논찬이 붙어 있다. 액자 밖의 서두에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여자는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하여 얼굴을 꾸민다’는 말을 하며 ‘포의교집’, 지우와의 사귀는 무척 어렵다고 언급한다.²⁶⁾ 또한 말미에는 “기생이 벼슬 못한 선비를 사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양소부는 과연 기생 중 의로운 기운을 지닌 험기 있는 인물이라 할 만하다. ... 세상의 관례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지기를 꿈꾸던 초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²⁷⁾ 이생과 초옥의 애정 실패 및 두 인물의 ‘부지소종’은 이러한 ‘포의교집’이라는 주제와 결합된다. 말미에 초옥이 중약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초옥의 ‘지우(知友)’를 찾는 태도가 지속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준다. ‘포의교집’ 및 지우(知友)를 추구하는 초옥의 태도 때문에, 초옥의 애정 실패는 쓸쓸하고 허탈한 정서만 남기지는 않는다. 이생과의 결연 실패는 초옥에게는 진정한 지우(知友)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행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인물이 서로를 대하는 상반된 태도는 ‘부지소종’과 결합되어 확장적인 의미를 생성한다. 초옥이 이생을 대하는 태도와 이생이 초옥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대조된다. 초옥은 이생이 지우(知友)인 줄 알고 그와의 사귀는 열정적으로 행하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생은 탁월한 문사적 재능 없이 주변에 의지하며 살며, 자신과 초옥을 끊임없이 의심한다. 지우와의 만남을 추구한 초옥과 달리, 이생은 단순히 한 번의 만남을

26) 위의 책, 104~107쪽.

27) 위의 책, 190쪽.

위해 초옥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초옥과 이생의 이후의 행보가 ‘부지소종’이 되는 것은, ‘그들의 애정결연이 실패했고 그 이후의 결말은 알지 못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인물 ‘각각의 생애의 결말 또한 알지 못하겠다’는 의미 또한 형성한다. 그들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부지소종’과 결합되어, 앞으로 그들 인생의 결과 또한 추측하게 만든다. 이생도 ‘부지소종’하고, 초옥도 ‘부지소종’하지만, 서술자는 초옥이 중약과 친하게 지냈다가거나 남편을 떠나갔다가거나 하면서 그녀의 삶에는 조금 더 정보를 더하고 있다. 초옥의 노력과 태도가 단순히 실패한 삶으로 남지 않고 다른 가능성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포의교집>에서 부지소종형 표현은 애정 결연 실패에서 오는 슬픈 정서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며, 초옥이 추구했던 지기지우를 만나지 못한 허무함이나 허탈함의 정서와도 잘 결합된다. 하지만 <포의교집>의 서술 방식과 태도에서 포의지교를 추구한 초옥에게 다른 결말이 있기를 바라며 ‘열린 결말’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부지소종’이 열린 결말의 가능성,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정서적인 몰입보다는 인식적인 사고의 과정을 요구하기에,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슬픈 정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3.2. 개방형 결말과 의미의 확장 :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금오신화』 작품 중에서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樓蒲記)>와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에도 ‘부지소종(不知所終)’이 등장한다. 이들 두 작품에서 ‘부지소종’은 각기 다른 정서 및 미감과 결부된다.

<만복사저포기>는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와 저포놀이를 해서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귀녀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이다.

後極其情哀, 盡賣田舍, 追薦再三. 一夕, 女於空中唱曰: “蒙君薦拔, 已於他國爲男子矣. 雖隔幽明, 寔深感佩. 君當復修淨業, 同脫輪迴.” 生後不復婚嫁, 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²⁸⁾

양생은 절에서 만난 처녀와 며칠간 열렬한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데 이때 처녀가 귀신임을 알아차린다. 귀녀의 가족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양생은 정성을 다하여 처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준다. 이후에 양생은 처녀로부터 덕분에 남자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양생도 업을 닦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 알지 못한다’(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고 종결된다.

<만복사저포기>의 결말부에 대해서는, 양생이 세계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마는 ‘비극적인 결말’이자 ‘갈등 패배형 결말’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선업으로 읽는 ‘갈등 극복형 결말’로 다양하게 해석된다.²⁹⁾ 그 까닭은 그 갈등의 대상이나 갈등과 관련하여 성취와 좌절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인이 죽은 사람임을 알게 된 후 양생이 슬퍼한 것은 사실이다. 헤어짐 및 애정 성취의 좌절은 사실이나, 처녀가 본래부터 귀신이었기에 슬픔이 증폭되지 않으며, 귀녀가 양생 덕분에 환생했다

28) “이런 뒤에 양생은 애정과 슬픔을 마음에 품은 그대로 다 나타내었다. 그리고는 전답과 가옥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사흘 저녁을 계속해서 재를 올렸다. 그러자 여인이 공중에서 외쳤다. “낭군이 재를 올려주신 덕택에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다시 났습니다. 비록 저승이 이승과 격리되어 있다고 하여도, 깊이 감사하고 흠모해요. 그대는 부디 다시 깨끗한 업을 닦으시어 함께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세요.” 양생은 그 뒤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김시습 지음, 심정호 옮김, 앞의 책, 80~81쪽.

29) 대표적으로 박희병(1995)은 <만복사저포기>를 비극적 결말로 해석하나, 설중환(2001), 김수연(2011)은 다르게 해석한다.

는 마무리는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양생의 죽음이 세계와의 갈등에서 패배하여 죽는 것이라 해석하기 모호한 면이 있다. 양생이 슬픔으로 인해 죽는 것인지, 여인의 말을 듣고 산으로 들어가 윤회를 벗어나는 종교적 초월을 이룬 건지 불분명하다. 부지소종의 앞에 있는 “입지리산채약(入智異山採藥)”을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면, 약초를 캐다는 것은 도선적인 의미, 자급자족하는 여유로운 신선 같은 삶을 의미하기에³⁰⁾ 충분히 도가적 지향성이나 선업과 치유의 과정으로도 이해된다.

‘부지소종’은 서사 내에 드러나는 정서와 관련지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양생의 감정선은 ‘부처와의 대결에서 이긴 기쁨→귀녀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귀녀가 주는 술의 괴이함 및 여인의 기이함→개령동 거처에서 여인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별하는 술자리에서의 서글픔→여인들의 시를 감상하는 놀라움→귀녀의 부모를 만났을 때의 괴이함과 놀라움→여인의 사정을 듣고 난 후의 슬픔→여인을 기리는 장례식에서의 애정과 슬픔’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후에 결혼을 마다하고 산에 들어가 그 종말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양생과 귀녀의 만남과 헤어짐, 둘 간의 미묘한 감정이나 의심 등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기에, 독자는 그 둘 간의 관계에 공감하며 서사를 읽게 된다. 그 과정에서 초반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주되게 조성되다가, 귀녀가 대접하는 이별의 술자리에서부터 슬픔과 서글픔, 기이함 등으로 주된 감정선이 변화하고 있다. 기쁨과 즐거움에서 기이함과 슬픔으로 전반적인 정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지소종의 결말 역시 슬픈 정서와 비극적인 미감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양생이 본래 유학자였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가정이 불우하여 만복사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생(書生)이라는 호칭으로 보아 불도(佛徒)는 아니다. 양생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는 결말은, 현실 세계를 중시

30) 김수연, 「〈만복사저포기〉의 ‘입산채약’과 비극성 재론」,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95~217쪽.

하는 유학자 서생으로는 추구하지 않는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유가적 사상과는 다른 삶을 귀녀와의 만남을 통해 양생이 추구하게 되었다. 귀녀와의 만남이 유학자로서 지닌 삶의 원칙까지 바꾸게 한 것이다. 마지막에 귀녀가 ‘깨끗한 업을 닦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불교적 수행을 하기를 바라는 요청이 들어 있다. ‘만복사(萬福寺)’라는 절에서 부처와의 저포놀이로 시작된 둘의 만남이기에, 결말 또한 충분히 불교적인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읽힌다. 유학자였다면 재혼을 하고 현생에서 소임을 다하며 살기를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생이 귀녀와의 혼인을 인정하여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것은 귀녀의 요청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현생을 중시하는 유학자로서는 변절을 의미하며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비극적인 미감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부에 ‘부지소종’이 덧붙여 약간은 다른 의미를 생성한다. 서사 전개상 즐거움에서 슬픔으로 전반적인 정서가 변화되었고, 유학자로서 추구하지 않을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생의 결말은 비극적인 미감이 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소종’이 첨가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부지소종’으로 인해 양생이 산에 들어가 잠적한 이후 ‘그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부지소종’의 ‘알지 못함’의 의미는 그의 행적을 명확하게 종결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은 그의 삶의 결말에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 두게 만든다. 전반적인 서사 전개의 감정 변화를 따르거나 유가적 사상에 의하면 양생의 삶은 슬프게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유가적 사상을 추종하지 않는 독자로서는 또 다른 삶의 방향성일 수 있다. 비극적 미감을 형성하는 결말부에 부지소종이 덧붙임으로 인해 완전히 닫힌 결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개방형 결말’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첨언에 의해 독자는 정서적 몰입에서 벗어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고민

하는 인식적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앞 문장의 ‘입산채약’의 도가적 의미와 연결되면, 비극적 미감이 더욱 상쇄되고 자족하는 듯한 새로운 정서와 미감이 경험되는 것이다.

<용궁부연록>은 ‘부지소종형 결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미감을 느끼기 어려운 작품이다. <용궁부연록>은 한생이 어느 날 꿈속에서 용궁으로 초대되어 갔다가 새로 지은 누각의 상량문을 지어주고 크게 대접을 받고 용궁을 구경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生出戶視之，大星初稀，東方向明，鷄三鳴而更五點矣。急探其懷而視之，則珠綃在焉。生藏之巾箱，以爲至寶，不肯示人。其後，生不以名爲懷，入名山，不知所終。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³¹⁾

한생은 꿈속에서 자신의 글재주를 인정받고 보물까지 받아 온 후에 ‘명산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다(入名山 不知所終)’고 마치고 있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꿈에서 성취한다는 점이 비극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서사 내에 드러나는 세계의 황포가 뚜렷하지 않기에 한생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에서 패배했다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결말이다.

또한 <용궁부연록> 속의 정서는 슬픔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한생은 박연의 신통의 초대로 용궁에 가게 된다. 서사 내에 한생의 감정은 거의

31) “한생이 문 밖을 나와서 보니 큰 별이 드문드문해지고 동방이 밝아오고 있었다. 닭은 세 회나 쳤고 별써 오경이었다. 급히 자기의 품속을 더듬어서 살펴보니, 야명주와 흰 비단이 거기에 있었다. 한생은 비단으로 길을 바른 작은 상자에 그 물건들을 간직하여 진귀한 보배로 삼고, 남에게는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그 뒤에 한생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명산(名山)에 들어갔다. 어느 곳에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다.” 김시습 지음, 심경호 옮김(2000), 앞의 책, 223~224쪽.

드러나지 않으나, 한생과 용왕의 대화나 행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낭관의 초대에 대한 놀라움→용왕의 융숭한 대접 및 이에 대한 고마움과 황송함→한생이 지은 상량문에 대한 탄복과 기쁨→운필연에서 노래와 시, 춤을 보는 기쁨→곽개사, 현무 등의 예능으로 인한 즐거움→세 강신의 시에 대한 찬탄→용궁 구경의 놀라움’ 등으로 전개된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한생은 선물로 받은 야명주와 비단을 진귀한 보배로 삼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이후에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명산에 들어갔다고 서술된다. 한생의 용궁 구경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대체로 ‘놀라움과 경이로움, 기쁨’ 등이다. 때문에 그가 명산에 들어갔다거나 ‘부지소종’했다는 결말부 서술은 그의 진귀한 경험을 홀로 간직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히기 쉽다.

<용궁부연록>의 ‘부지소종’은 ‘명산(名山)에 들어갔다’고만 되어있어 <만복사저포기>에서처럼 도선적 귀향으로 보기도 모호하다. 앞의 문장으로 보았을 때,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명산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기대해보면, 한생이 홀로 자족하면서 살았음을 의미한다.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는 필요에 의해 조정에 나아가 대부(大夫)의 역할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士)의 소임대로 조용히 공부를 하는 것을 도리로 삼는다. 한생이 뛰어난 문장력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고 그가 용궁에서 글로써 인정받는 점에서 그의 욕망은 사대부로서의 등용이나 쓰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한생이 용궁에서 돌아와 ‘부지소종’하는 결말은, 이제에서라도 대부(大夫)의 본업을 다하였으니 이후는 사(士)로서 학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용궁부연록>의 ‘부지소종’의 의미와 미감은 용궁에서 상량문을 쓰고 명문장으로 인정받고 온 한생의 경험과 결부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용궁부연록>은 유학자로서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나 좌절감을 표현하는 대신에, 용왕에게 초대되어 용궁에서 문장으로서 인정받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 유학자 한생에게 명예를 얻고 소임을 이미 완수한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용궁의 초대로 인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때문에 한생은 이러한 경험에 만족하여 명예와 이익을 더 이상 좇지 않고 명산에 들어간다. 이후에 ‘부지소종’했다는 표현은 ‘정보 없음’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일말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서사 전개에 흐름상 한생이 자족하며 살았다는 의미의 연장선에 있다. 이와 관련되어 미감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용궁에서나마 유학자의 삶을 위로하는 <용궁부연록>의 결말에 ‘부지소종’은 첨언처럼 기능하며, 특정한 정서에의 몰입을 저지하고 여러 가능성을 해석하게 하며 인식적 여운을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와 <용궁부연록>의 부지소종형 결말은 다른 세 작품인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은 전쟁으로 죽은 부인을 그리워하던 이생이 부인을 추모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결말이다. 결말부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聞者莫不傷歎, 而慕其義焉)’가 ‘부지소종’ 대신 자리하고 있다.³²⁾ 이생의 ‘죽음’을 명확히 서술하며 ‘슬프다’거나 ‘애처로웠다’는 주변의 평가와 함께 비극적 미감을 명확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에서 홍생은 부벽정에서 만난 여인을 잊지 못하고 병을 얻어 죽는다. ‘구월 보름에 죽었는데 5,6일이 지났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이를 토대로 ‘신선이 된 것’이라는 언급이 덧붙여 있다.³³⁾ 홍생의 ‘죽음’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32) 生亦以追念之故, 得病數月而卒. 聞者莫不傷歎, 而慕其義焉.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장례를 지낸 뒤에도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고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수개월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슬퍼하여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위의 책, 120쪽.

33) 其後, 生念娥, 得勞瘵疴羸之疾, 先抵于家, 精神恍惚, 言語無常, 展輓在床, 久而

있으며 주변인의 증언을 덧붙여 신선이 되었다고 믿게 만든다.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에서 염라왕에게 자질을 인정받아 자리를 물려받기로 한 박생은 집안일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웃 사람의 꿈에 그가 염라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덧붙여 있다.³⁴⁾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박생이 결국 다른 세상에서 염라왕이 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 이 세 작품은 <만복사저포기>나 <용궁부연록>이 ‘부지소종’을 써서 ‘주인공의 종말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不愈. 生一日, 夢見淡妝美人, 來告曰: “主母奏于上皇, 上皇惜其才, 使隸河鼓幕下爲從事. 上帝勅汝, 其可避乎?” 生驚覺, 命家人, 沐浴更衣, 焚香掃地, 鋪席于庭, 支頤暫臥, 奄然而逝, 卽九月望日也. 殯之數日, 顏色不變, 人以爲遇仙屍解云.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그 뒤 홍생은 여인을 연모하다가 기운이 탈진해서 온몸이 파리해지는 병을 얻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집으로 갔다. ... 어느날 꿈에 홍생은 열은 화장을 한 미인을 보았다. 그 미인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아씨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옥황상제께 여쭙았더니 옥황상제께서 그대의 재주를 사랑하시어 휘하에 예속시켜 종사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 홍생은 놀라 깨었다. 그는 집안사람에게 자기 몸을 깨끗이 목욕시켜 옷을 갈아입히게 하였다. 그리고서 향을 피우고 땅을 소제한 뒤뜰에 자리를 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턱을 괴고 잠깐 누웠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날은 곧 구월 보름이었다. 염습을 하고 빈소에 안치한 지 5,6일이 지났어도 홍생의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나서 육체를 버리고 신선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위의 책, 150~151쪽.

- 34) 王復勅臣民致賀, 以儲君禮送之. 又勅生曰: “不久當還. 勞此一行, 所陳之語, 傳播人間, 一掃荒唐.” 生又再拜致謝曰: “敢不對揚休命之萬一!” 旣出門, 挽車者蹉跌覆轍, 生仆地, 驚起而覺, 乃一夢也. 開目視之, 書冊拋地, 燈火明滅. 生感訝良久, 自念將死, 日以處置家事爲懷. 數月有疾, 料必不起, 却醫巫而逝. 其將化之夕, 夢神人告於四鄰曰: “汝鄰家某公, 將爲閻羅王者”云.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박생은 문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사람이 발을 헛디뎈 수레가 뒤집어졌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고꾸라졌다. 그가 놀라 일어나서 깨어보니, 그것은 한바탕 꿈이었다. 박생은 눈을 떠서 주위를 바라보았다. ...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곧 죽으려나보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에 박생은 병을 얻었다. ... 박생은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세상을 떠나려 하던 날 저녁이었다. 근처 이웃 사람들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이웃집 아무개 씨는 장차 염라왕이 될 것이다.” 위의 책, 182쪽.

매우 명확하게 인물의 종말과 그 결과가 그려진다. ‘주변인의 증언’에 의해 ‘완결형 결말’이 되어 버리며, ‘부지소종’이 줄 수 있는 일말의 다른 가능성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만복사저포기>와 <용궁부연록>이 인물의 죽음을 명시하지 않고 부지소종으로 끝내는 이유는,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형성하고 이와 관련되어 특정한 의미나 미감을 형성하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부지소종형 결말은 서사의 주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미감이 형성된다. 그러나 ‘정보 없음’이라는 서술로 인해 일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물의 종말이나 결말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로 인해, 앞서 제시된 정서가 다소 상쇄되는 효과를 보인다. 김시습의 작품 중 <만복사저포기>는 전반적으로 슬픈 정서와 비극적 미감이 조성되지만 ‘부지소종’이 더하여져 약간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 때문에 비극적 미감이 확장되지 못하였다. <용궁부연록>도 마찬가지로 ‘부지소종’으로 인하여 결말을 굳이 명백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서사 전반의 정서가 기쁨이나 놀라움으로 드러났기에, 결말부의 산에 들어가 ‘부지소종’ 했음 역시 그러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읽히며 그와 관련된 안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김시습이 결말부에 사용한 ‘부지소종’ 표현은 정서나 미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보다는, 결말의 의미와 관련지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시습은 인물의 종말에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부지소종형 결말을 사용하고 있다. 김시습의 작품들은 서술자의 언술이나 내용과는 별개로, 작자 김시습의 비극적인 삶이 투영되어 읽히는 것이 사실이다. 유학자로 설정된 인물들이 애정 욕망이나 입신양명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기에, 그것이 마치 김시습 본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로 인한 비극미가 독자의 텍스트 감상의 근간에 자리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지소종’ 역시 ‘비극미’의 일환으로 이해되곤 하였다. 그러나 작

자는 <이생규장전>에서처럼 절절한 슬픔과 비극적인 미감을 의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을 ‘부지소종’으로 마무리했다.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처럼 충분히 ‘완결형 결말’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궁부연록>의 한생을 ‘부지소종’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만복사저포기>와 <용궁부연록>의 결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이자, 약간은 다른 가능성을 남기는 ‘개방형 결말’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알지 못함’으로 마무리하는 이 결말 형태는 서사 전개상 제시된 정서나 미감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사가 조성하는 정서가 절제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부지소종’으로써 서사 전반에서 조성되는 정서로의 몰입을 저지하고, 비극적 결말로 제한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의이함이나 당황스러움, 궁금함과 관련된 인식적 여운을 더하고 있다.

4. 인식적 각성과 아이러니의 조성 : 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의 작품들에 쓰이는 ‘부지소종’은 앞서 제시한 작품들과는 매우 다른 정서와 미감을 형성한다. 신광한의 『기재기이(企齋記異)』 중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에서는 ‘부지소종(不知所終)’을,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서는 ‘이역기사(已易其肆)’를 볼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전기소설의 변형이라 불리기 충분할 정도로 비극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둘 다 ‘갈등 극복형 결말’이자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결말에 불필요하게 ‘부지소종’이 사용됨으로써 이야기의 허구성이 돌출되며 색다른 미감이 조성된다.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는 최생(崔生)이 증공(證空)선사와 두타산

무주암에서 지내다가 동천을 통해 용궁에 가서 용왕을 만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증공 선사와 함께 용추동을 구경하러 갔다가 사라져버린 최생이 어느 날 다시 나타나서 용궁에서 겪은 일을 증공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최생은 호탕하고 기개가 높아 좋은 경치를 찾아 구경하기를 즐겼는데, 문득 최생이 증공에게 진인이 산다고 소문이 난 신비한 용추동을 안내해달라고 한다. 이에 둘은 함께 용추동에 가는데, 최생이 그만 벼랑 앞 바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증공은 이 일로 오래도록 두려워하였는데, 여러 달이 지난 어느 날 최생이 학을 타고 나타나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 최생이 추락한 후에 한 굴속으로 들어가니 용궁이 나왔고, 최생은 그곳에 가서 용왕 및 여러 신선들을 만나 함께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실컷 즐겼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선이 늙지 않는 약 한 알을 주면서 인간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최생이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마친 최생은 이것이 하루 사이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여러 달이 지나서 놀랍다고 말하며 떠난다. 그 뒤 ‘최생은 입산하여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나중에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後生入山採藥不知所終), 증공은 늙도록 무주암에 살면서 이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한다.(證空 老居無住庵多設此事云)’로 마치고 있다.

生如其言 來逾時 鶴若集于地 開視 則乃寺之庭也. “吾謂此只一日之內也 今已數月乎? 所可恨者 不得與師同乘靄馬雲車 遊戲十洲三島間爾.” 其後 生入山 採藥不知所終 證空 老居無住庵多設此事云.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³⁵⁾

35) “최생이 이야기를 마치고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단지 하루 사이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미 여러 달이 지났단 말입니까? 선사와 더불어 함께 무지개 구름 마차를 타고 십주 삼도를 유람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하였다. 그뒤 최생은 입산하여 약초를 캐며 살았는데 나중에 어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증공은 늙도록 무주암에 살면

<최생우진기>는 최생의 기이한 용궁 경험을 단순히 최생의 입장에서 전하지 않고, 증공이라는 인물이 최생에게 듣고 대신 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서사는 ‘가장 바깥의 서술자-증공의 경험-최생의 경험’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서술자는 가장 바깥 층위에 위치하며, 도입부에서 지역 소개와 인물 소개를 한 후 결말부에서 ‘증공이 이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는 소문을 전하고 있다. 직접 최생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증공’이라는 무주암의 선사이다. 증공은 최생과 함께 용추동까지 갔다가 그의 추락을 목격하였고, 나중에 다시 돌아온 최생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물이다. 가장 내부에는 최생이 직접 용추동에서 추락하여 용궁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자리한다. 이러한 이중의 액자 구조 내에서, 최생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부지소종(不知所終)’으로 마무리되고, 증공은 ‘늙도록 이 일을 자주 이야기 한다(證空 老居無住庵 多設此事云)’로 끝난다. 최생의 ‘부지소종’ 뒤에 이를 이야기로 전승하는 ‘증공의 상황’이 덧붙여 있는 형태이다.

<최생우진기>에서 경험되는 정서는 전혀 비극적이지 않다. 최생이 그토록 원했던 용궁 경험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기쁨 또는 만족스러움의 정서가 조성된다. 최생은 본인이 평소에 원했던 이계를 체험하고 왔고, 신비한 알약도 받아왔기에 만족스러우며, 더욱 많은 곳을 유람하고 싶어 했다. 그가 나중에 입산하여 약초를 캐며 살았으며 그 이후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욕망이 충족되었으니 자족하며 살았음을 예상하게 하며 편안한 정서를 자아낸다. 앞서 신선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알약을 주었다는 점을 착안하면, 그의 ‘부지소종’은 다시 이계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암시한다. ‘부지소종’은 기이한 경험 뒤에 붙어 기이함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며, 그의 욕망 충족이라는 점에서 ‘행복한 결말’의 일환으로 읽히는 것이다.³⁶⁾

서 이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한다.” 신광한 지음, 박현순 역주, 『기재기이』, 범우, 2008, 123쪽.

문제가 되는 것은 ‘증공 선사’라는 존재이다. 서술자는 최생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지 않고 증공의 입을 통해 전하고 있다. 최생은 그토록 원했던 이계를 체험하고 와서 이를 증공에게 말했다. 최생이 용궁 경험을 한 신이 한 일을 증언하기 위한 존재로 증공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에 증공이 늙도록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덧붙은 ‘부지소종’은 ‘증공(證空)’이라는 ‘구연자(口演者)’가 지닌 의미와 결합되어 ‘결말’의 의미를 재고하게 만든다. 증공(證空)은 이름 자체가 ‘증언(證)이 헛되다(空)’는 뜻을 지닌다.³⁷⁾ 이름과 결맞게, 증공은 서사 내에서 최생이 추락한 일을 두고 ‘최생이 기생집에 간 것’이라고 거짓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이름의 의미 및 서사 속 그의 거짓말은 그의 말에 신뢰도를 떨어지게 만든다. 서사 말미에 최생이 ‘부지소종’하고, 그의 이야기가 거짓말쟁이 증공(證空)에 의해 전승된다는 점에서 최생의 경험 역시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지소종’의 ‘정보 없음’이 증공의 ‘거짓말이자 허언’과 연결되면서, 도리어 최생의 이계 경험 여부까지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액자 바깥에서 최생과 증공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생은 입산하여 어찌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36) 『기재기이』에 속한 네 편의 작품의 결말이 비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나 일반적인 전기 소설의 결말과도 다르다는 점에 여러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계나 환상을 이용하고 있지만, 결연이 성공하고 훌륭한 자녀를 낳는 등의 결말에서 이계보다 현실계를 지향하는 미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김보현, 「〈기재기이〉의 사상적 토대와 미의식」,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97~121쪽 참고.

37) 증공(證空)이 서사 내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서, 또한 ‘증공(證空)’이라는 이름이 증언(證)이 헛되다(空)는 뜻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 내의 증공의 발언은 거짓말임을 암시한다. 엄태식(2013)은 증공의 이름이 허구적이고, 증공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려우며, 3인칭으로 서술되는 점에서 최생의 용궁 체험이 사실인지 여부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엄태식, 「〈최생우진기〉의 서사적 의미와 신광환의 현실 인식」, 『민족문화』 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31~64쪽.

증공이 늙도록 무주암에 살면서 이 일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고 한다'라는 결어를 덧붙인다. 증공이 이 이야기의 전승자라는 점에서, 서술자 또한 이 이야기를 증공에게서 들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공은 이야기세계 내에서 '거짓말쟁이'이자 '허언'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최생의 종말에 붙은 '부지소중'은 그 자체로 '정보 부족'을 의미하기에, 이야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를 확인시켜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뒤에 '허언을 잘하는 증공이 이 이야기를 하곤 했다'는 또 다른 층위가 덧붙여 있다. '거짓말쟁이 증공'과 결합되기에 '최생의 부지소중'은 더욱 더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도리어, 부지소중의 '정보 부족'에 '거짓말'이 결합되어, 이 모든 이야기가 허구(虛構)나 허언(虛言)임을 증명하는 장치로써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최생우진기>의 '부지소중'은 인물의 행적이나 경험에서 비롯되는 기이성을 강조하기보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기에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는 반전을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한다.³⁸⁾ 이야기를 전하는 서술자라면 옹당 독자나 청자에게 이것을 믿게 만

38) 아이러니(irony)는 모순이나 반어를 뜻하는 말로, 기대했던 상황이나 상식과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해 생기는 부조화, 혹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게 '상황적 아이러니'와 '언어적 아이러니'가 있다. 아이러니는 미(美)이론에 있어서는 골계, 해학, 기지 등과 함께 '웃음의 한 종류'로 이해된다. 이어령의 『해학의 미적 범주』(1958)에는 '골계'의 하위 범주로, '주관적 골계' 중에 '해학(humor), 아이러니(irony), 풍자(satire), 기지(sit)'가 구분되어 소개되고 있다. 이때의 '아이러니'는 웃음의 한 종류로, 주체와 대상 사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미적 쾌감'의 일종이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웃음'의 일종으로 이해되거나 미적 쾌감으로 인정되기도, '수사적 기교'나 '문학적 어조'의 일종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노스럽 프라이(2000)는 '아이러니'를 '신화, 로맨스, 상위모방, 하위모방'과 함께 대등한 하나의 '서사 양식'으로 접근한다. 그는 서사 내 주인공의 능력이나 위치를 중심으로 서사 양식을 구분하는데, '아이러니'가 '풍자적 어조를 넘어 '회극적'이기도 '비극적'이기도 한 '양식'이라고 본다. '아이러니'가 회극적이거나 비극적인 분위기를 띠며 복합적인 미감을 조성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경험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독서 과정에서 특정한 미감을

들어야 할 텐데, 도리어 지금까지 전해준 이야기 자체가 거짓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야기의 말미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구나’, ‘신이한 경험은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야기 전개 내내 몰입하여 믿어왔던 자신의 모습을 문득 깨닫게 된다. 서사 전개에 따라 용궁 등에 대한 신이함이나 기대감이 충족되다가 말미에서 갑작스레 ‘내가 속았구나’하는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자리한 ‘최생의 부지소종’과 ‘거짓말쟁이 증공의 이야기 전달’이라는 결말은, 독자에게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서사와 독자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를 부각시키고, 독자로 하여금 서사에서 급작스레 빠져나오게 만드는 인식적 각성을 야기한다. 이는 더 나아가, 독자에게 ‘허구에 빠져있던 자신’과 이를 깨닫는 과정에서의 ‘어이없음’을 경험하게 하거나 허탈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최생우진기>는 ‘부지소종’과 ‘거짓말’이 결합되어, 적극적으로 이야기의 사실성과 신뢰성을 전복시키며 이야기 자체를 허구로 확정짓게 만들고 있다. 부지소종의 ‘정보 없음’이 이야기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복하다거나 희극적인 분위기를 넘어 독자에게 인식적 반전을 경험하게 하며 상황적 아이러니를 조성하고 있다.

신광한의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에서는 ‘이역기사(已易其肆)’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하생이 귀녀와의 사랑을 이루어 결국 현생에서 함께 잘 살게 되는 결말을 보이는데, 전기소설 중에서도 통속화되어 행

조성한다는 데 동의하며, 이를 ‘미감’이나 ‘웃음’으로 치환하여 부르는 대신에 ‘아이러니’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노스립 프라이,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93~131쪽; 유병관, 「풍자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반교어문연구』 6, 반교어문학회, 1995, 339~358쪽; 김경미, 「골계 해학 풍자의 개념과 교육 연구-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121쪽 참고.

복한 결말로 변형된 작품으로 많이 일컬어졌다.

하생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고 이로 인해 한 여인과 만나 사랑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은 귀신이었다. 여인은 시중(侍中)인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지만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곧 되살아날 것이라 고백한다. 하생이 여인의 부모를 찾아가 이 말을 전하고, 여인은 결국 다시 살아나서 하생과 결혼하여 잘 살게 된다. 이야기의 말미에 하생은 장원급제하여 벼슬을 살게 되고, 여인과 부부가 되어 사십 여년을 함께 살았으며, 두 아들을 낳아 모두 세상에 이름이 났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하생이 혼례를 정하는 날에 예전에 도움 받았던 ‘그 점쟁이를 찾아갔지만 이미 자리를 옮겨 뜨고 없었다(求前之卜師, 則已易其肆云)’고 마치고 있다.

自是夫婦敬愛, 雖鴻之光, 缺之妻, 未足喻也. 翌年, 生捷巍科, 初仕寶文閣, 後至尚書令. 與女爲夫婦, 凡四十餘年, 生二男, 長曰積善, 次曰餘慶, 皆顯于世. 生定婚之日, 求前之卜師, 則已易其肆云.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³⁹⁾

흥미로운 것은, 이야기 말미에 ‘부지소종’의 일종인 ‘이후의 거취나 결말을 알 수 없음’이 되는 주체가 주인공 하생이 아닌 ‘점쟁이(卜師)’라는 점이다. 하생은 여인과 두 아들을 낳아 잘 살았고, 이후에 ‘하생이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이미 자리를 옮겨 떠나서(求前之卜師, 則已易其肆云)’ 만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주인공 ‘하생’의 종말에 대한 ‘정보 없음’이나 ‘거취 불명’이 아니라, ‘점쟁이’의 ‘거취 불명’으로 서사가 끝나고 있다.

39) “이로부터 부부가 되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비록 양홍과 맹광, 극결과 그의 아내라도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이듬해에 하생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보문각에서 첫 벼슬살이를 시작해서 뒤에 상서령에 이르렀다. 여인과 부부가 되어 무릇 사십 여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들을 낳아 맏이를 직선(積善)이라 하고 둘째를 여경(餘慶)이라 하였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났다. 하생이 혼례를 정하는 날에 예전에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미 자리를 옮겨 뜨고 없었다 한다.” 신광환 지음, 박현순 역주 (2008), 앞의 책, 152~153쪽.

‘점쟁이의 거취 불명’이 서사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하생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귀녀와의 애정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생이 귀녀와 만나게 되는 계기는, 점쟁이의 조언을 통해서였다. 점쟁이가 하생에게 도성 남문으로 나가 해가 저물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알려주었고, 하생이 의문스럽고 두렵지만 이에 따랐더니 이팔청춘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된 것이다. 하생은 이후에 여인의 말을 따라 그녀의 부모를 설득하여 여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왔고, 이에 여인이 살아나 혼인하게 된다. 점쟁이는 하생의 경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점쟁이의 거취 불명’은 비현실적인 경험을 야기한 점쟁이의 ‘신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점쟁이의 거취 불명’은 ‘하생이 귀녀를 재생시키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완결형 결말’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점쟁이가 사라져버림으로써 하생이 애초에 그 점쟁이를 만났는지, 귀녀와 결혼한 것이 맞는지, 이야기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귀녀와의 만남을 증명해 줄 증언자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점쟁이의 거취불명은 점쟁이의 신이성을 증가하는 동시에, 점쟁이와 관련된 하생의 경험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서술자는 ‘점쟁이의 거취 불명’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하생이 기이한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사 내에 점쟁이를 등장시키고 그의 종말을 알 수 없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점쟁이의 거취 불명’은 하생의 행복한 결말에서 오는 안도감이나 희극적인 정서에 모순과 부조화를 만들며 아이러니를 형성시킨다. 앞서 언급한 <최생우진기>에서 ‘부지소종’과 증공의 ‘거짓말’이 결합되어 서사를 따라가는 독자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생시켰던 것처럼, <하생기우전> 역시 하생의 신이한 경험을 증명해줄 점쟁이가 사라짐으로 인해 서사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며 독자의 의심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독자는 이야기의 신뢰성 전복에서 오는 어이없음 또는 모순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된다. 점쟁이의 거취 불명으로 인해, 독자는 몰입되어 있던 서사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되고 이야기에 심취했던 경험에서 급작스레 빠져나오게 된다.

신광한의 두 작품 모두 ‘완결형 결말’에 ‘부지소종’을 덧붙여 그 본래의 의미나 미감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 신광한은 전기소설 장르적 창작 관습에 의거하여 ‘비에의 정서’에서 주로 쓰이는 형식적 결말로써 ‘부지소종’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한 ‘완결형 결말’에 ‘부지소종’이 덧붙음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었다. 애정과 입신 등 세속적 욕망이 성취되는 서사에, ‘부지소종’의 ‘불분명함’ 혹은 ‘기이성’의 맥락이 연결되니 사실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허구성이 돌출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부지소종’이 적극적으로 의미화되어 이야기세계에 개입함으로써 이야기의 허구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내며, 이야기세계의 정서적 몰입과 반전 사이에서 아이러니를 조성하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독자 수용의 관점에서 독자가 텍스트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식적 소통 과정에 주목하여 부지소종형 결말이 작품 내에 어떠한 미감과 의미를 조성하는지 고찰하였다.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폈는데, 부지소종형 결말이 독자의 정서적 몰입을 고취시키고 비극미를 조성하는 경우, 독자로 하여금 여러 의미를 따져보게 만들어 정서적 거리두기를 야기하고 인식적 여운을 창출하는 경우, 그리고 정서적 몰입보다는 인식적 각성을 일으키며 아이러니를 조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에는, 인물이 겪는 갈등의 결과 및 결말

형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갈등 패배’형 ‘완결형 결말’에서 ‘부지소종’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하나는 서사 전반의 ‘슬픈 정서’를 이어받아 ‘비극적인 미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서적 몰입에 거리를 두고 ‘개방형 결말’을 지향하며 ‘인식적 여운’을 형성하는 것이다.

<조신>, <김현감호>, <운영전>의 경우에는 ‘갈등 패배’에서 오는 슬픈 정서의 연장선상에 ‘부지소종’이 자리하며 비극적인 미감이 조성되고 있었다. <조신>과 <김현감호>는 종교적 성취가 그러지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신이 인간적인 애욕 추구에 실패하여 상심하는 과정으로 인해, 또한 신도장이 부인과 헤어지고 슬퍼하는 결말로 인해, 결말부의 ‘부지소종’ 역시 갈등 패배형 결말의 비극미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운영전>의 경우에는 김진사와 운영의 애정 실패의 비극미에, 액자 밖의 독자인 유명이 ‘부지소종’이 더하여져 인생무상의 의미나 허탈한 정서가 가중되고 있었다.

<아도기라>, <포의교집>, <만복사저포기>, <용궁부연록>의 경우에는 결말부의 ‘부지소종’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서, 독자로 하여금 갈등 패배에서 오는 슬픔에 몰입되지 않고 ‘정서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완결형 결말’을 ‘개방형 결말’로 해석할 실마리를 주거나 의미를 확장하여 생각할 여지를 주게 되면서 정서적 공감보다는 인식적 여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도기라>에서 세 인물의 서사에 ‘부지소종’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고, <포의교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지소종’이 덧붙여 초옥의 포의에 대한 꿈의 좌절 및 애정 실패가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만복사저포기>와 <용궁부연록>은 ‘부지소종’으로 인하여 김시습의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명확한 결말을 지양하고 ‘개방형 결말’을 지향하고 있었다.

‘갈등 극복’형 ‘완결형 결말’에서 ‘부지소종’은 새로운 가능성을 극도로

확장시키며 결말의 의미를 반전시키고 있었다. <최생우진기>와 <하생기우전>의 경우에는 갈등 극복형 결말에 ‘부지소종’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미 완결된 결말에 부정적인 의미나 의심스러운 여지를 제공하여 서사 자체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허구성을 돌출시켰다. 이로 인해 독자를 인식적 자각의 과정으로 이끌며 아이러니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지소종형 결말은 ‘정보의 제한성’과 ‘갈등의 결과가 유예되는 특성’, ‘결말의 비결정성’으로 인해 한문 서사 내에서 특유의 미감과 의미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지소종’으로 인하여 서사 전반의 정서가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생기기도 하며, 의미가 전환되기도 하였다. ‘알 수 없음’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해, 갈등의 결과나 결말, 인물의 실체, 사건의 진위 여부나 신뢰성이 부정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부지소종’은 ‘전기소설’이라는 장르 내에서 주목받아온 만큼, 창작 시기나 관습, 장르적 특성과 관련지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부지소종형 표현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 13세기 일연의 『삼국유사』 속 <조신>, <김현감호>, <아도기라>에서 ‘부지소종’은 대체로 불교적 성취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신이함’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불교 확산의 선구자적인 업적을 이뤄내고서도 해당인물이 ‘부지소종’하게 되면서 신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속 인물이 겪는 갈등과 정서에 따라 ‘부지소종’은 ‘신이함’에 그치지 않고 <조신>이나 <김현감호>에서는 비극미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고 <아도기라>에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다.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만복사저포기>에서 ‘부지소종’은 전기소설의 특성인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 경우가 많았으나, <용궁부연록>이나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와 함께 살펴보니, 갈등 패배의 ‘완결형 결말’ 대신 ‘개방형 결말’을 유도하며 다양한 해

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16세기 작품인 신광한의 『기재기이』 속 <최생우진기>와 <하생기우전>에서 ‘부지소종’은 갈등을 극복한 ‘완결형 결말’ 말미에 자리함으로써 결말의 의미를 재고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였다. 행복한 결말에 불필요하게 ‘부지소종’이 덧붙여 서사의 허구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인식적 각성 및 아이러니를 유도하고 있었다. 신광한이 기존의 전기소설의 문법이었던 ‘부지소종’을 갈등 극복형 결말에 사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미감과 의미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애정전기소설로 일컬어지는 17세기 작품 <운영전>에서 ‘부지소종’은 애정 실패의 비극미에 인생무상의 여운을 더하고 있었지만, 19세기 작품인 <포의교집>에서 ‘부지소종’은 애정 실패의 비극미를 상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연구가 다룬 텍스트들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시기적으로 광범위하지만, 크게 ‘전기소설’ 장르의 자장 내에 존재하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조신>과 <김현감호>는 ‘전기소설’의 범주에서 함께 다뤄지고, <운영전>과 <포의교집>은 ‘애정전기소설’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며, <최생우진기>와 <하생기우전>도 ‘전기소설의 변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기소설이라는 장르 중심으로 부지소종형 결말의 미감과 의미를 세심하게 고찰한 의의가 있다. 전기소설의 범주 내에서 ‘부지소종’은 슬픈 정서나 비극적인 미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두기를 유발하거나 인식적 사고 과정을 유도하여 새로운 미감이나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전기소설 장르에서 거리가 먼 작품들, 전계소설이나 영웅소설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함께 고찰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검승전>, <검객소모전>, <설생전>, <허생전> 등의 전계소설이나, <최고운전> 같은 영웅소설에서 ‘부지소종’은 전기소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미감과 의미를 조성한다. 전계소설이나 영웅소설에서 ‘부지소종’은 인물의 ‘기이함’이나 ‘비

범함'을 강조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소설의 장르가 달라지면 서 '부지소중'의 기능이나 이에서 드러나는 미감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지소중'은 허구 서사에 있어서는 '결말'에 특정한 미감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이지만, 역사적 서술 관습 내에서 '인물의 종말'에 대해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최치원'과 같은 역사적인 인물을 대표하는 용어로 쓰이면서 그와 관련되어 여러 저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최고운전>은 이러한 역사적 서술 관습의 영향권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로 생각된다. 차후의 연구에서 '역사적 서술 관습'의 맥락에서 '부지소중'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경미·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여이연, 2003, 1~255쪽.
- 김시습 지음, 심경호 옮김,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1~382쪽.
- 박희병,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1~1076쪽.
- 신광환 지음, 박현순 역주, 『기재기이』, 범우, 2008, 1~192쪽.
-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363쪽.
- 이상구 편역,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15, 1~338쪽.
-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1-2』, 솔출판사, 1997, 1~448쪽.
- 최삼룡·이월령·이상구 공역, 『한국고전문학전집24. 유충렬전, 최고운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1~541쪽.
- 고영진, 「환상소설의 결말에 관한 연구 -구병모, 이기호, 최제훈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5~28쪽.
- 김경미, 「글게 해학 풍자의 개념과 교육 연구-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121쪽.
- 김보현, 「〈기재기이〉의 사상적 토대와 미의식」, 『한국고전연구』 1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97~121쪽.
- 김수연, 「〈만복사저포기〉의 ‘입산채약’과 비극성 재론」, 『문학치료연구』 2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95~217쪽.
- 김승환, 「내포독자의 개념과 존재 양상」, 『어문론총』 7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445~470쪽.
- 김일렬 외,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1982, 1~421쪽.
- 김형석·류수열, 「비극성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 결말 구조 연구 -〈이생규장전〉, 〈운영전〉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41~164쪽.
- 노스립 프라이,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1~705쪽.
- 로버트 C. 홀립, 최상규 옮김, 『수용미학의 이론』, 예림기획, 1999, 1~250쪽.
- 박경진, 「〈운영전〉에 나타난 죄인-작가의 사후 면죄를 위한 글쓰기와 호출된 독자들」,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0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5, 581~618쪽.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대중예술의 통속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 동인, 1995, 1~416쪽.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33~58쪽.
- 박희병,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소설미학(小說美學)」, 『한국한문학회』 18, 한국한문학회, 1995, 239~268쪽.
- 박희병, 「전기적 인간의 미적 특질」, 『민족문화사연구』 7, 창작과비평사, 1995, 120~140쪽.
- 변숙자·현승환,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허혼(虛婚) 풍속 연구」, 『청람어문교육』 69, 청람어문교육학회, 2019, 357~393쪽.
- 설중환, 「만복사저포기: 분석심리학으로 읽어보기」, 『한국학연구』 1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239~262쪽.
- 신재홍, 「초기한문소설집의 전기성에 관한 반성적 고찰」,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129~151쪽.
- 신재홍, 「〈김현감호〉와 〈조신〉의 비극적 삶과 치료적 글쓰기」,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01~326쪽.
- 심정미, 「〈용궁부연록〉에 나타난 주인공의 인식 변화와 그 의미」, 『국학연구론총』 28, 태민국학연구원, 2021, 363~393쪽.
- 안토니오 다마지오, 엄지원·고현석 옮김, 『느낌의 진화』, 아르테, 2019, 1~392쪽.
- 엄태식, 「〈최생우진기〉의 서사적 의미와 신광한의 현실 인식」, 『민족문화』 42, 한국고전번역원, 2013, 31~64쪽.
- 유병관, 「풍자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반교어문연구』 6, 반교어문학회, 1995, 339~358쪽.
- 정환국, 「〈금오신화〉와 〈전등신화〉의 지향과 구현화 원리」,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307~334쪽.
- 최삼룡, 『한국초기소설의 道仙思想』, 형설출판사, 1982, 1~312쪽.
- R.G. 콜링우드, 김혜련 옮김,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1~404쪽.

ABSTRACT

The Aesthetics and Meanings of Bujisojong(不知所終) E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ader-Reception-

Park, Yun-ja

This study examines the Aesthetics and Meanings of Bujisojong(不知所終) Ending from the perspective of Reader-Reception, focusing on the emotional and cognitive communication experienced by readers. Centering around Jeon-gi(傳奇) Novels, this paper identifies three distinct patterns: Endings that heighten emotional immersion to evoke tragic beauty; Endings that induce emotional distancing by prompting readers to ponder multiple interpretive possibilities, thereby leaving a lingering cognitive resonance; and Endings that prioritize cognitive awakening over affective immersion to generate critical irony.

The Aesthetics and Meanings of Bujisojong(不知所終) Ending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conflicts and the specific structural form of the ending. Within the “Defeat-in-Conflict” and “Closed-Ending” framework, Bujisojong(不知所終) primarily functioned in two distinct directions: first, by inheriting the overarching sorrow of the narrative to cultivate a tragic aesthetic; and second, by presenting new possibilities that distance the reader from emotional immersion, thereby gesturing toward an Open-Ended structure and leaving a lingering cognitive resonance. In the “Overcoming-Conflict” and “Closed-Ending” framework, Bujisojong(不知所終) dramatically expanded new possibilities, thereby subverting the conventional meaning of the narrative closure.

In *Joshin*, *Gimhyeongamho*, and *Unyeongjeon*, Bujisojong(不知所終) extends the sorrow of “Defeat-in-Conflict” to evoke a tragic aesthetic. In *Adogira*, *Pouigyojip*, *Manboksajeopogi*, and *YonggungBuyeonrok*, it generates diverse interpretive possibilities, enabling emotional

distancing rather than passive immersion in grief. In *Choesaenguijeong* and *Hasaenggiujeon*, incorporating Bujisojong(不知所終) into “Overcoming-Conflict” closures casts doubt on the resolution, questioning narrative reliability and accentuating its fictionality.

Key Words Bujisojong, Ending, Chinese-Narratives, Aesthetics, Tragic-Beauty, Reader-Reception, Cognitive-Communication, Reader-Communication, *Josin*, *Gimhyeongamho*, *Unyeongjeon*, *Adogira*, *Pouigyojip*, *Manboksajeopogi*, *YonggungBuyeonrok*, *Choesaenguijeong*, *Hasaenggiujeon*, *SamgukYusa*, *Kijaekiyi*, *Jeon-gi*

논문투고일: 2026.07.15.

심사완료일: 2026.08.08.

게재확정일: 2026.08.13.